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감당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켈림은 우리의 허를 때면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면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5절

### 내 죄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다!

#### 2023 고난주간 맞아 성육신하셔서 대속해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소망 이해

고난주간의 금요일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을 기념한다. 바로 그분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던 그날이다. 곧 가시나무를 만드신 이의 머리에 커다란 가시 면류관이 쓰여진 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입에서 고통의 신음이 터져 나온 날, 병사들이 그 몸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고문한 날이다.

그날 예루살렘 밖으로 난 길을 힘들게 걸어갈 때마다,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는 상처투성이가 된 그분의 등을 짓눌렀고, 군중은 그 모습에 뭉서리를 쳤다. 저 옛날에, 모세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은 이제 사람의 몸골로 보기도 어려울 만치 상하였다(사 52:14). 온몸이 피로 얼룩진 그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여인들은 아이들의 눈을 얼른거렸다. 그

리고 남자들은 그 십자가를 진 죄수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다. 병사들은 계속해서 매질을 했다. 이에 천사들도 두려워 떨었으리라.

이날의 수난을 미리 내다보았던 모든 예언은 그렇게 성취되고 있었다. 그분은 그렇게 정죄와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다. 대적들이 나타나 그분을 쳤을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다. 그중 하나는 그분을 팔아넘기며 배신의 입맞춤을 남겼다. 밤새도록 사람들이 때리고, 침 뱉고, 모욕하는 일이 그칠 줄 몰랐다. 아침이 되었을 때, 또다시 그 등에는 채찍질, 뺨에는 수염을 뽑는 조롱이 행해졌다.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갈보리 언덕을 향해 걸어갔다.

팀 켈러 목사는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에서 피터 버거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의 고통의 해결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모든 문화는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들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바로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다.

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죄 없는 하나님의 희생만이 무고한 이들에게 끝도 없이 쏟아지는 고문을 정당화한다. 신이 당하는 비참한 시련만이 인간의 고뇌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약 성경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상할 수 없는 위로들로 가득 차 있다. 절대자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쓴 잔을 경험했다는 것은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된다.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 당하신 것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자기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



난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는 삶을 사셨다고 말한다. 거절과 배신, 가난과 학대, 낙심과 좌절, 사랑받는 이의 죽음과 극심한 고통, 그리고 죽음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경험하셨다. 또 십자가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조차 감당하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

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부르짖으며 아버지와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셨다. 신약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면하고 등을 돌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주요 종교 가운데 오로지 기독교만이 신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고 가르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악과 고통을 없애주는 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인간은 세상의 악과 고통이 왜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없는지는 알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인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안겨 주시려고 더없이 깊은 고난에 스스로 몸을 던지셨다." (3면으로 계속)



### 사역자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 CT, 전쟁으로 인해 "고아목사" 가 된 우크라이나 목회자/평신도들의 사역 현장 밀착 취재 보도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많은 교회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남아 있던 일부 목회자들이 러시아군에 체포·협박·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신도들 사이에서 동요를 불러오기도 한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 글로벌 스태프 작가인 소피아 리는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소위 "고아 목사"로 불리우는 남아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만나, 오늘날이라도 죽을 각오로 사역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Ministers in Ukraine Are 'Ready to Meet God at Any Moment': Pastors and church leaders who stayed behind serve as if every day might be their last).

제임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할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매서운 겨울 날씨로 인해 그의 입에서는 입김이 난다. 그가 단순히 헤르손의 한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그에게 생명줄이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에 교회 벽이 흔들릴 때

도, 목사의 네 살배기 아들이 울 때 그는 쉬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 빵을 근처 마을로 가져다주기 위해 운전하기 전에도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한다. 종종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한다.

(3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4면 푸른초장 박근재 목사



7면 평신도를 위한 조진신학 이길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발행인 칼럼

침묵과 무관심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침묵과 무관심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다. 그러나 침묵과 무관심은 전적으로 다르다. “무관심의 절정”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작품으로서 철학자 필리프 프티와의 대화를 싣고 있는 책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있다면 다름 아닌 무관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떠나서 “무관심의 절정”이라는 책 제목은 이 시대를 대변하기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여기에 있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 11:17) 무엇을 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는 무관심에 대한 강한 질타이다. 그 뿌리 깊은 죄악과 질병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져서,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이웃에도, 다른 민족에도, 다음 세대에도 철저한 무관심, 그야말로 무관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는 그렇지 않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관심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어린 관심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생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고 또 앞으로 누릴 유업과 상급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일이면 종려주일이다.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한 죽음의 길을 걸으셨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리저리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예수님의 대해서는 ‘무관심의 절정’으로 지내려는 것은 아닌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자. 어디선가 들리는 듯하지 않나?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무관심과 비슷한 침묵이 있다. 말은 없지만, 그 침묵은 깊은 관심의 절정일 뿐이다. Anon이라는 작가의 짧은 글, “긴 침묵(the long silence)”이 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한다. 이런저런 억울한 사연들로 항변한다. 이들은 사람들을 심판할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런 사정을 아시거나 하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과 불평을 쏟아 놓는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실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대신 길게 침묵하셨다. 그들의 생애를 관심있게 지켜보신 하나님의 침묵이었다. 그 “긴 침묵”은 어떤 준엄한 책망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다.

말 많은 시대에 때론 “긴 침묵”으로 말해 보자. 긴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 강할 것이다. 긴 침묵은 어떤 지혜보다 빛날 것이다. 긴 침묵은 어떤 행동보다 바를 것이다. 긴 침묵은 어떤 시간보다 멋진 것이다. 긴 침묵은 어떤 감정보다 깊은 것이다. 긴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 잘질 것이다. 긴 침묵은 어떤 책망보다 아플 것이다. 긴 침묵은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긴 침묵으로 말씀하셨다. 그 침묵 속에 사랑이 있었다. 용서가 있었다. 지극한 관심으로 가득찬 침묵, 예수님의 침묵이었다. 고난 주간이 되어도 아무 말 없는 그대는 냉정한 무관심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고난을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고귀한 침묵의 사람인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를 소망한다!

리더십저널, 도약과 성장 통해 ‘위대한 교회’로 전환된 교회들의 공통적인 리더십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LifeWay Christian Resources)의 대표 표지를 수행하고 있는 톰 레이너 박사(Dr. Thom Rainer)는 미국에 있는 수천 개의 교회 중에서 위대한 교회로 판명된 13개 교회를 집중분

석을 했다(Breakout Churches: How to Make The Leap). 이 교회들을 분석하면서 ‘좋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 도약과 성장을 경험하여 ‘위대한 교회’로 전환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한 리더십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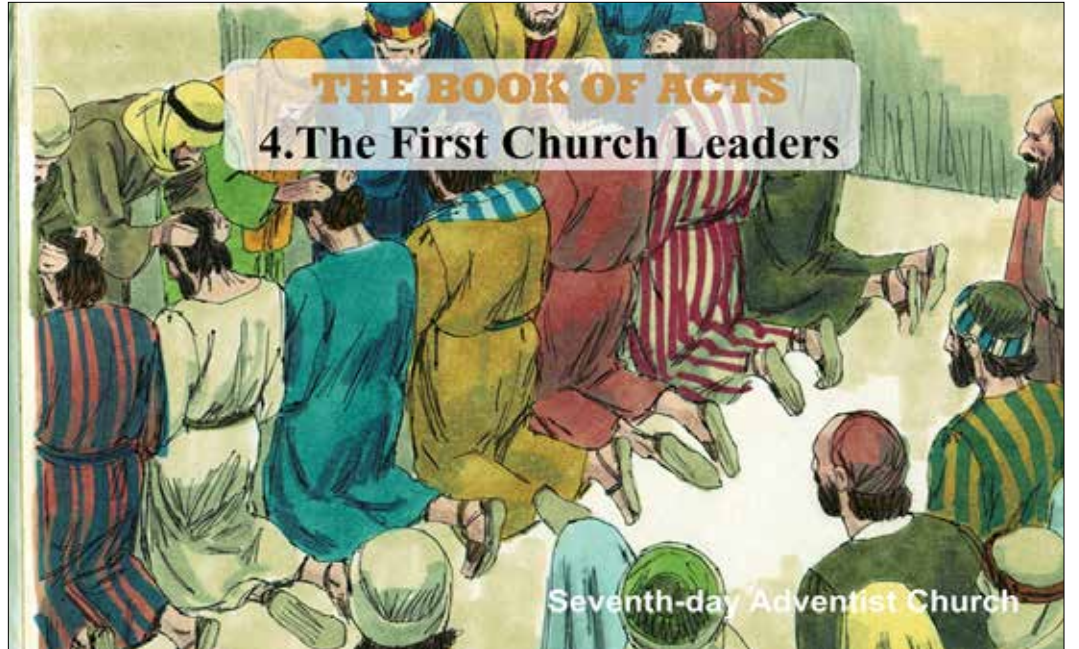
부름받은 리더(사도행전 1장)

초대 교회 리더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행 1:8). 열두 사도는 부름을 받아 초대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 거기에는 유대 대신 선별된 맛디아도 있었다(행 1:21~26). 우리가 조사한 급성장한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특별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인다.

부름받은 리더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하필이면 이 부분이 첫 단계로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뭐지? 어쩌거나 목회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가?” 놀라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상당수 교회의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이 세상의 직업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는 달랐다. 그들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명백히 의식하고 있었다.

헌신하는 리더(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대부분 베드로의 설교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역인 설교(행 2:14~39)와 기도(행 2:42)에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2:42~47을 보면, 초대 교회의 실상을 어렵게나마 엿볼 수 있다. “당연히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헌신적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목회자라면 설교를 하지 않는가요? 그들 중 기도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찾아



열정적인 리더(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부터 다시는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때 이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

외부지향적 시각을 가진 리더(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초대 교회의 모임을 과감하게 넘어선다. 복음의 메시지와 치유 능력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에게 전해졌다(행 3:1~10). 3단계 리더십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집요한 자세로 교회를 이끌고, 그들의 시선을 이웃에게로 향하게 한다. 이런 목회자는 복음 전파를 우선순위에 둔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유형의 사

담대한 리더(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의 리더십 유형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상대하는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 속에서 생생히 드러난다. 이 부부는 땅을 팔고 난 후 그 값을 속였다(행 5:1~11). 이 행위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즉사했다.

“그들은 이 두 사도가 이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임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담대한 리더는 믿음의 발걸음을 성령 내딛는다. 받아들이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험난한 소명의 길을 주저하지 않는다. 담대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는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어 넘어야 한다.

사도행전 5장의 리더십 유형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상대하는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 속에서 생생히 드러난다. 이 부부는 땅을 팔고 난 후 그 값을 속였다(행 5:1~11). 이 행위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즉사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담임목사 청빙공고
워싱턴주(WA) Bellevue에 위치한 벨뷰한인장로교회는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노회 소속 교회로서 현 담임목사님께서 은퇴하시게 되어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요건: 1. KAPC 소속이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목회하실 분, 3.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영어소통이 되시는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및 학력증명서, 2. 목사안수증명서 및 2인 이상의 추천서, 3. 자기소개서(목회철학, 비전, 계획 포함), 4. 최근 설교영상 2편(온라인 링크와 원고)
유의 사항: 1. 제출마감일: 2023년 4월 29일, 2. 서류심사후 개별통지함, 3. 보내실 곳: belvuekpc@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문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내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1면에서 계속)

이것은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른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마 4:16)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어째서 이 땅에 가득한 고통과 어둠을 단번에 손보지 않는다고 따지기도 한다. 세상에 있는 비극을 왜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택하기보다 직접 불의를 산산이 부수고 악을 끝내셨다면 어땠을까? 그 당시 모든 악을 없애주셨어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악은 이어질 것이고, 지속적으로 악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과 어

둠은 대부분 인간 내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악과 고통을 쳐부술 칼과 권세를 손에 쥐고 오셨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의의 실현하는 대신 악을 견뎌내셨다. 두 손에 칼을 쥐시는 대신 못박혀셨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온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셨으므로 언젠가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도 악을 심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를 끝내는 정치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을 대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주님께는 더 근본적인 회복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마주치는 무수한 악 앞에서도 무기력해지지 않고 과감히 맞서고 견디게 한다. 또한, 우리

마음에 도사린 악을 몰아내는 특별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 내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신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바른길을 찾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고난을 견디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울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동정심으로 울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가지고 울어야 한다.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은, 부활절이 지난 후에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눈물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나의 죄를 슬퍼할 때 흘리는 눈물이다. 그 눈물은, 나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한 왕을 찬양할 때 흘리는 눈물이다. 그리고 그 눈물은, 나를 위한 그 죽음을 영원히 기념하며 흘리는 눈물이다.

###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

(2면에서 계속)

이 형벌이 오늘날의 우리에게게는 가혹한 듯 보이지만, 이 사건이 해결된 후에 교회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행 5:12-16). 영적 유산을 남기는 리더(사도행전 6~7장) 사도행전 6~7장의 리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앞 단계의 모든

특성은 물론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 사도행전 6:1~7에 언급되어 있는 열두 사도와 같은 이런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일에 민첩하다. 그리고 일을 맡은 자들이 세운 공은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준다. 사람들의 칭찬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높이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기꺼이 책임을 지는 자들이다. 사도행전 6~7장의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 이런 유형의 목회자는 흔치 않다. 우리가 조사한 수천 교회를 더듬어보아도 이런 유형의 목회자들

거의 찾아내지 못했다. 톰 레이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1장인 부름받은 리더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도 교회가 괄목할 만한 유익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목회자가 설정해야 할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수준을 다음 단계로 밀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1장이 아닌 6~7장의 리더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시역자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갈...'

(1면에서 계속)

12월의 어느 화요일 추운 아침, 제임스(가명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함)는 먼지 묻은 노란 밴의 운전대를 잡고 우크라이나어로 기도했다. 그는 현지인들이 흔히 '섬'이라고 부르는 진흙투성이 드니프로강을 따라 인공섬으로 이어지는 다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러시아의 포격으로 그곳의 작은 교회의 창문 몇 개가 산산조각이 나고, 제임스는 함판으로 부서진 창문을 막았다. 이 섬은 빈번히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 강 바로 건너편은 아직도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헤르손 주의 동쪽 부분이 보인다. 수만 명의 러시아군이 수도 헤르손을 탈출해 황급히 후퇴하던 지난 11월부터 매일 복수를 하듯 강 건너편에 로켓과

수류탄, 탱크포탄, 박격포 등을 투척하여 이곳에서만 매일 1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교회 창문을 수리해야 했다. 섬의 인구는 원래 30,000여 명이 되는데 이 중 약 4분의 1 정도의 주민만이 이곳에 남아 있었다.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 대피하지 못했거나 이곳에 남기로 고집한 이들이다. 섬에서 피난처와 보급품을 제공하는 곳은 교회가 유일하다. 그래서 제임스는 목숨 걸고 이 다리를 건넜다.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마지막 날'을 요한계시록에 적힌 먼 종말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연기, 폭발, 잦은 정전을 마주하며 진실을 마주한다: 우리는 여기에 잠시 있을 뿐이고, 내일은 이 땅을 떠

날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헤르손을 점령하자 제임스 부부는 "우리가 죽는다면 함께 죽는다"고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도시에 남기로 했다. 그들에게는 가장 어린 네 살배기부터 17살까지 네 명의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러시아 포격이 5층 아파트를 쟁가 블록처럼 흔드는 모습, 둘째 딸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모아 교회로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기로 한 것은 어렵지만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제임스는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도망친다면 누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3주 동안, 그들은 교회 계단 아래에서 잤다. 약 300명의 사람이 교회 지하에서 몇 달 동안 피신했다. (13면으로 계속)



## 시론

### 340개에 NO하는 단순한 믿음!



은호근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1970년대,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20대 나이에 억만장자 반열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현대 자신이 만든 회사인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픽사"라는 회사를 차려 성공시키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애플에서 쫓겨난지 27년이 지나 1997년에 다시 애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복귀할 당시 애플은 연간 10억달러에 이르는 적자 투성이 회사였습니다. 1주에 60달러를 상회하던 주가는 이미 1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애플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조만간 문을 닫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 잡스가 한 가장 첫 번째 일은 당시 애플에서 생산되던 제품들 350개를 10개로 대폭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제품들 340개에 대해 'NO'를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애플은 다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기대 이상 수준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퍼온 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합니다.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단순함은 더는 뺄 것이 없는 상태, 즉 '핵심만 남겨 놓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나 다빈치가 알고 있는 이 '단순함의 가치'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 단순함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350개로 분산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잘 믿는 거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결국 비본질에 끌려다녀서 본질 즉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빼앗기 위해 사탄이 자주 쓰는 전략중 하나입니다. 사탄은 비본질에 자주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가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미혹을 뚫고 나가는 '본질을 찾아가는 지혜', '믿음을 찾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히 12:2)만을 바라보는 단순함! 이 '단순함, 본질로의 회복'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무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순함은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충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을 생활할 때 오만가지 340개 관심에 자주 넘어집니다. 340개에 NO 하고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나의 관심을 단순히 집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는 그 한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반드시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과 비전 성취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내 믿음'으로 '내 인생 안에' 끌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이를 체험하면 간증이 생깁니다. 이 간증이 나의 인생의 황무지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게 만들고, 주를 찬송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역사, 이 간증의 역사, 이 찬송의 역사가 어찌 일어나나? 내 관심을 350개로 분산시키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들 340개에 No하고 본질적인 오직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 하나님 눈에 띄는 믿음! 주님이 가시다가 내 앞을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멈춰서서 만드느 믿음!" 바로 구원 받을만한 믿음!, 바로 축복 받을만한 믿음! 거기에, 오직 거기에 관심갖고 집중하면 됩니다. 그때 해결의 역사, 응답의 역사, 성취의 역사, 믿음의 역사, 간증의 역사, 찬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체험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는 믿음을 살게 됩니다. '트랙'입니다. 트랙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일이 됩니다.

얼마전 한 젊은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이 큼니다. 올해는 주님께 더 많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무했던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 친구는 박사공부하면서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권유에 따라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도 초대했습니다. 그것도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3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이 젊은 친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결국 박사학위 취득하고 얼마 후 미국의 우수한 주립대학교 석과 교수를 거쳐 현재 학과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트랙'에만 들어가면, '인통의 역사' 즉 '믿음의 인맥'이 생기게 되고, 그로인한 '행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350개의 오만가지 관심에서 340개에 NO하고 '오직 하나의 관심에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부활절입니다. 「1. 나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2. 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 나는 오늘 그 역사가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3년 부활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자체로서 단순하고도 충분한 부활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다시 한번 분명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본질로의 회귀! 여기에 세상이 인정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역사가 2023년에 반드시 나타나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에 '간증과 찬송의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minkyungjob@gmail.com



튀르키예 강진 긴급구호  
**무너진 튀르키예,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즉각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지금 돕지 않으면 늦습니다. 튀르키예(터키)를 도와주세요.**

송금) Bank: Fifth Third Bank (5/3 Bank)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l.  
Account Number: 7935287420  
수표) Pay to the order of : KAFHI  
Memo: 튀르키예 긴급구호  
보낼 주소: KAFHI, 411 Kingston Ct. Mt PProspect, IL 60056  
연락처) 847 296 4555, 703 473 4696, 이메일 kafhi@fh.org

**2월 6일 새벽 규모 7.8의 강진.**  
7층짜리 건물도, 사람들의 삶도 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신음과 생사를 모르는 가족을 찾는 생존자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튀르키예 곳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된 안디옥 개신교회 (기독교김리회)

**사망자 21,000명 (2023년 2월 10일 기준)**  
시시각각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최대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FOOD KIT (식량형키트) | NON-FOOD KIT(비식량형 키트) | SHELTER KIT(쉘터형 키트)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요즘 연일 챗GPT가 뉴스거리입니다.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챗GPT이란 "Cha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GPT)"의 합성어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미리학습(Pre-trained)'시킨 후에 문장을 만들어 이를 대화형(Chat)으로 답변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입니다. 따라서 위키백과를 이것을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정의합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고, 대학 과제를 해주고, 코딩 버그까지 수정해줍니다. 에세이, 시, 소설을 써주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고, 난의도 높은 학술논문도 씁니다. 고객센터나 은행 등에서 인

간 대화 상담원의 업무를 대체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심리 상담사'의 역할도 합니다. 최근에는 챗GPT가 미국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을 섭렵했고, 유엔 와튼스쿨 MBA 기말시험에서 'B'학점을 받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진화될 것입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답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만물박사'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교육시스템을 붕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 숙제나 시험을 치르는 부정행위로 인해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서 챗GPT

를 사용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작성한 것이 적발되어 학생 전원을 0점 처리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의존함으로써 학생들의 에세이 실력, 학습능력, 창의력이 퇴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가상 인간을 활용한 범죄가 늘어납니다. 인공지능이 무기화되어 전쟁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성도 창의성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진화하면 인간을 대체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는 않을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걱정이 급진적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인공지능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경제'신문이 미국포브스가 정리한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네 가지를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상식을 모른다, 지속적 학습과 적응을 하지 못한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윤리적이 아니다'입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비판적 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둘째, 인간의 한계도 깨달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과학자들도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



전할수록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한 수'가 인간의 '한 수'보다 탁월하고 완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한 수'를 읽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수'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인공지능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수'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한 수'보다 탁월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겸

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창조적인 사고가 있고,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과 통곡이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지능의 발전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존재인 인간에게 세

로운 도전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가치와 윤리적 고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과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적인 역량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사55:8)

## 푸/른/초/장

박근재 목사  
(뉴저지교협회장, 시나브로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4개월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뵈고는 하소연했습니다.

"예수님! 제 오라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었다면 제 오라비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21절). 그리고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거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길 줄 아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22절). 즉,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23절). 세상 끝날 때 이루어질 부활이 아니라 그 당시 바로 그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랑하는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마르다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세상 끝 날에 있을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

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은 했지만, 정작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당장 부활의 능력을 베푸실 것

이러고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처럼 자신이 방금 고백했던 그 고백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 내가 믿나이다"(27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은, 예수님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에게는 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독 마르다에게만 이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39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막상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취하려고 하자, "주여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

그 누가 되었든지 절대 죽지 않을 것인데,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 하십니다(25-26절). 그러자, 마르다는 기다림도 없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만 고백한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마르다의 고백은 실상은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마르다였지만, 그녀의 고백은 실상 빈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만, 통속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고백한 대답이었던 말입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 따로, 현실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장에 창조와 회복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했지만, 막상 도움을 받아야 할 찰나에 마르다는 현실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머리와 가슴속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적인 체면과 위신을 위해서 하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은, 작정하고 마음만 먹으면, 의도적인 말로는 얼마든지 번지르르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신앙 따로 현실 따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서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 마르다의 고백과 믿음

요한복음 11:17-35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할 주요 & 긴급 발의안들 소개 (1)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함께 일어나 지켜 주세요!!

캘리포니아의 시민들을 지켜 달라고 뽑아 놓은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Deadline (마감일)을 맞추고자 500개의 새로운 발의안을 내놓음으로 총 2600개의 발의안을 내놓았다는 리포트입니다. 이 기록은 캘리포니아의 지난 10년의 레코드상 가장 많은 발의안들이 나온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단체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입법부와 가장 깊이 관련되어 앞에서 first hand로 법안 전문인으로 일하는 미국 단체들과 동역하며 수많은 법안들을 밤새 번역하여 그 심각성을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왔었습니다.

더 심각한 법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교묘한 발의안들이 쉬지 않고 나오고 시민들의 뒤에서 통과되어, 오늘날의 영적 어두움이 가득한 "캘리포니아"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 Action을 취해주세요.

지킬 것을 위해 반대해야 할 발의안, 찬성해야 할 발의안들을 골라서 저희 홈페이지 TVNEXT.ORG에 계속 시리즈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만 소개합니다. 자녀와 학부모를 갈라놓게 될 발의안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AB 665: Minors: consent to mental health services.- 미성년자 정신상담에 차단된 학부모의 자녀보호권

- 발의자: Wendy Carrillo (D-Los Angeles: 민주당 하원의원)
- 크리스천 입장: 반대
- 공청회(Hearing): Tue, March 28 @9am -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State Capitol, Room 437 (6번째 안건일)

AB 665는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총 11명의 Judiciary Committee 멤버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Hearing)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PASS 또는 NO PASS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Judiciary Committee에 있는 11명에게 연락하는 것이 시급하고 여러분의

투표(전화/온라인 편지)가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 발의안 요점:

현재 캘리포니아 법 (Existing law)에 의하면, 만12세 미성년자가 근친상간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경우에만, 외래환자(outpatient)를 기준으로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정신건강 치료나 정신상담에 스스로 동의 할 수 있으며, 주거 쉼터(Residential Shelter) 서비스에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미 법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2014년 Minor Consent가 또한 여러 모양으로 "At any age"에서 consent 이 통과된 것도 그중 하나이다. 그런데, AB 665는 훨씬 선을 넘습니다.

### 문제점 요약 - 1 -

AB665가 만일 통과된다면,

1. 위에 보드시피 현재 법 (Existing law)으로는 적어도 "근친상간, 아동학대 등"이 있었다는 증거를 아이들이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AB 665는 위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This bill (AB665)"은 그런 증명하는 절차 과정을 제거("by removing requirement...")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발의안을 끝까지 읽어도 그 어디에도, 필요한 조항을 제거하는 대신 어떤 다른 verification process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정신 치료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도 어린 미성년자에게 말이죠.

발의안에 의하면, 모든 것은 "minor, 미성년자"와 "professional person"의 결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SEC 2(b))

따라서 발의안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중요한 "verification" 내용과 절차를 remove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녀와 학부모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정신적 명목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격리시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한 예로, 감정기복 심한 사춘기 12세 자녀가 아침에 부모에게 기분 상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자녀에게 선생님이 나 친구 중, 학교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suggestion을 받고 상담실에 찾아가길 경우, 어떤 verification process도 없이, abuse, incest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로 돌려보내져야 할 학생들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학교/정부가 그 자녀를 학부모로부터 격리시

킬 수 있다는 겁니다.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지요. 하지만, 저희 단체가 지난 10년 넘게 알려드리고 반대/찬성하라고 했던 캘리포니아 법안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전부터, 우리가 만일 막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라고 알려드렸던 일들이 그동안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AB 665가 통과된다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아닌, 그저 일반 "평범한 부모와 평범한 자녀" 그저 가정마다 있을 만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정부와 연결된 곳들 (학교 등)의 일방적 결정권으로 학부모와 자녀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발의안 설명에 적혔듯이, 학부모와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그 대화, 상담 자체에 "부모가 대화의 자리에 있을지 말지" 정부와 미성년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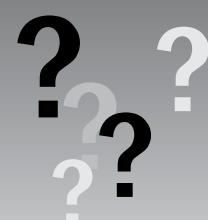
2. 특별히 분별해야 할 것은, 비록, 발의안 SEC2(3)(c)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알려려고 "best efforts" 노력하라고 적고 있지만, 발의안 전체를 구석구석 제대로 읽어보면, 이 발의안은 미성년자들의 "정신건강 상담 치료"에 있어서, 부모들의 결정권은 전혀 없습니다. "정신건강 치료, 또는 상담" 받는 것을 결정하기 전의 의논이나 상담도 미성년자에게 온전한 결정권이 주어지며, "학부모를 포함할지, 알릴지 말지"에 대한 마지막 공식 결정권은 미성년자와 정부 기관의 서비스에서 나오는 "Professional person"에게 주어진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범한 학부모들과 평범하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혼돈이 심해질 수 있는 자녀들을 갈라놓는 게 (SEPARATE PARENTS FROM THEIR CHILDREN) 심각하다 못해서, 슬픈 법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더 많은 발의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은 TVNEXT.ORG에 가서서, 법안/발의안 카테고리를 누르신 후, AB665를 누르시면 자세한 법안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고 ACTION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종교 다원주의는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 텍사스에서 Kim

## 제퍼슨, 청교도 신앙 파괴, 종교 다원화주의 존 F 케네디, 다원주의적 종교법 국회 통과

A: 좋은 질문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이승구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성중심주의의 비판에서 시작되며 어떤 절대적인 것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보다 다원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어떤 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든가 이론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종교다원주의 시초와 이를 발전시킨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경일 목사는 청교도 신앙과 삶이란 주제로 크리스천신문에서 연재한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신론자인 제3대 제퍼슨(Jefferson) 대통령이 청교도 신앙(信仰) 파괴와 '종교 다원화주의(religious pluralism)'란 사탄의 무서운 비밀 코드(cord)를 심어줬다면, 그것을 최초로 개봉(開封)한 대표적 인물인 바로 1961년 제35대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된 카톨릭(Catholic) 신자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암살당하기 전까지 자신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다원주의적 종교법(宗敎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1962년 케네디의 정교분리 원칙에 동조한 미연방 대법원은 일명 '엔겔 대 비탈레' (Engel v. Vitale) 사건에 대해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는 unconstitutional 위헌(違憲)이라고 판결하여 기도회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청교도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 미합중국에서 반성경적, 반기독교를 촉진(促進)하는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가 열린 것이다. 1960년대까지 미국 전역의 각 학교 조회 시간에는 특정한 기독교 예식이 행해졌다. 즉, 주기도문을 포함한 기도나 성경 구절을 읽는 예식 등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주(洲)에 따라 학교에 따라 다양(多樣)했다.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나라와 민족, 개인들을 위해 기도하던 것과 모든 성경공부가 금지(禁止)된다. 연방대법원의 정교분리 판결 이후 그 여파(餘波)로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과 십계명(十誡命) 조각이 제거(除去)된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Irony)한 것은 반성경적, 반기독교화를 촉진한 무신론 종교인인 존 F 케네디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하원과 상원의원에 당선되는데 그의 정치(政治) 기반(基盤)이 놀랍게도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착(定着)했던 청교도들의 꿈과 비전의 "언덕 위의 도시"(city on the hill)의 거점이었다던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류응렬 목사의 "납작 앞드리기"란 책에서(p.33-34) 2021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실베스타 비만 목사가 기도를 맡았는데 그는 기도를 마치면서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4일 미국의 117차 국회 개원기도회에서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의원의 기도는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이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하원기도 하지만 감리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인본주의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986-2023  
대학교 설립 37주년

## Global Leadership Seminar & 2023 Commencement

###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학위 수여식

세계 미래 지도자 발굴 및 양성과 세계선교를 위해 1986년도에 설립한 Midwest University 는 개교 37주년을 맞이하여 전문적이며 성공적인 강사를 초청하여 Global Leadership 세미나를 개설하며 전세계 리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박동선 회장**  
파킹턴 인터내셔널 회장  
세계 최고의 전성적인 협상가이며 현 한국의 실세 리더들의 모인인 청산포럼 회장, 105개국 주한 대사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부임 조부대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



**Dr. Bill Federer**  
American Minute 설립자, 역사학자, 저술가(100 여권), Midwest 리더십박사, 미국 건국과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 리더십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양준길 목사**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에서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교단을 탈퇴하며 목사 리더십 결단력에 감동과 도전을 준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목사



**권준 목사**  
새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며 가장 젊고 건강한 목회를 하며 미 서부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목사



**Dr. James Song 총장**  
Midwest University 설립자, 총장  
MIRI 연구재단 이사장  
Global Leadership Institute

**Global Leadership Seminar**  
May 15(Mon) - 18(Thu), 2023

**학위수여식**  
May 18, 2023. 10:00 am

**IEA 목사안수식**  
May 18, 2023. 1:30 pm

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www.midwest.edu



#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 “이성적 사고 vs 영적 사고”

L.A 지역에 연일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비가 매우 많이 내린 다음 날 십리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뎠다가 강한 물줄기가 흐르는 개울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이 발견하고 급히 뛰어 들어와서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저를 건져 주지 않았더라면 끔찍한 사고가 날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듯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사고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중심이 된 합리주의입니다. 이성이 중심이 된 합리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이성이 중심이 되어 접근합니다. 이성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

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성이 중심이 된 합리적 판단이 위험한 이유는 이성이 이미 죄로 오염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것의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언제나 섞일 수 없듯이 이성이 중심이 된 합리적 판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성이 중심이 된 합리적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 사고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하나님의 말씀도 수용을 거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사고를 합니다. 영적 사고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사고가 이성과 합리성을 아예 거부하

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고에도 이성과 합리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고의 방식이 이성이 중심이 된 사고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성이 중심이 된 사고방식은 언제나 '나' 중심에서 사고를 하고 언제나 '땅의 방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반면에 영적 사고방식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에서 사고를 하고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이성이 중심이 된 사고와 영적 사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큼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사야 55:9). 이성이 중심이 된 사고는 땅에 비유되고 영적 사고는 하늘에 비유됩니다. 이성이 중심이 된 땅의 사고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게 함으로 끝없는 혼란과 다툼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영적 사고

로서의 하늘의 사고는 나를 봄으로 혼란과 다툼과 비방을 멈추게 하고 내면을 질서 있게 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영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로 오염된 이성을 매일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죄로 오염된 이성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매일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판단하던 이성이 "하나님 저를 비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비판해 주세요"라고 겸손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매우 단순한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日 모든 초등학생,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배운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서술된다.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도 실린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존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표현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2024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 149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3종)를 보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기술이 4년 전 검정 때인 2019년보다 후퇴한 것이 확인된다.

도쿄서적은 2019년 검정본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고 적은 내용을 이번 검정본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돼'라고 명시했다. 소수 교과서에서 사용하던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은 '동원' 또는 '징용'으로 모두 바뀌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전 검정본 때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도 늘어났다. 피해 사실을 '징병당하고' '참여하게 됐다' 등 피동형 문장으로 풀이했다. 교과서 본문 내의 기술도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되고'에서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참가하고 후에 징병제가 시행됐다'로 변경됐다.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관동) 당시 조선인이 학살당한 사실도 사라졌다. 일본문교 교과서 2019년본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사람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검정본에서 모두 삭제됐다. 터무니없는 영토 주장은 더 강화됐다. 특히 독도를 '불법 점거'라고 서술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도쿄서적은 2019년 초등학교 3~6학년용 지도 교과서 검정본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에 접해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라고 명시했으나 올해는 '불법'을 추가했다.

### 골드만삭스 "AI로 세계경제 연 7% 성장 가능"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AI 기술의 전 세계적 도입이 세계 경제를 연 7% 성장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블룸버그가 28일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AI 도입이 인건비 절감과 새로운 일자리 창조, 필수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가 상당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은행 안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

들은 "생성형 AI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노동 생산성을 매년 1.5% 포인트가량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까지 10년간 미국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1.3%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극적인 도약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 기업의 절반이 AI 기술을 도입할 경우 연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대략 7%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향후 10년간 생산성이 연 1.4% 포인트씩 증가하면서 7조 달러(약 9094조원)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AI 기술의 확산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 미국 노동자가 70%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가운데 사무, 행정직, 법 분야 종사자 등 소수만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봤다.

### 스코틀랜드 수장에 '30대 무슬림' 유서프 당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장에 남아시아계 무슬림 출신 유서프(38) 보건부 장관이 내정됐다. 유서프 내정자가 정식 취임하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첫 유색인종 수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BBC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집권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27일(현지 시간) 당대표 선거에서 52% 득표율을 얻은 유서프 장관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의회 투표와 국왕의 승인을 거쳐 자치정부 수반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SNP가 제1당이기에 때문에 의회 표결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남아시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유서프 내정자가 취임하면 첫 유색인종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자 영국의 첫 무슬림 정당 대표라는 기록을 갖게 된다. 1999년 자치정부 수립 이후 최연소이기도 하다.

유서프 내정자는 당선 후 연설에서 "파키스탄 판자브에서 영어도 거의 못 하는 상태로 이민 온 조부모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의 어머니와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유서프 내정자는 1985년 글래스고에서 태어나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글래스고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앨리스 셸먼드 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의 보좌관이 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2011년 26세에 최연소 스코틀랜드 의원이 된 후 2012년부터 국제개발 장관, 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의회에 진출했을 때 스코틀랜드 고유 복식인 킬트를 입고 영어와 파키스탄, 인도에서 쓰이는 우르두어로 선서해 주목을 받았다. 유서프 내정자는 당선 소감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유럽연합(EU) 복귀를 원한다고 말했다. 단 스코틀랜드의 이익을 위해 영국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소수 인종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美 제치고 최대 채권국 된 中, '이로운' 나라 만든 빌려준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등극했다. 선진국들이 재정을 각축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채권에 육박할 정도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올해까지 중국의 순(純)해외채권이 무려 9000억 달러(약 1169조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10년까지 0달러였던 중국의 외국에 대한 채권은 2014년 100억 달러로 증가한 뒤 2021년 한 해에만 405억 달러를 기록해 11년 만에 400배 넘게 급증했다.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해외채권은 재정적자를 겪는 개발도상국이나 절대빈곤 수준인 후진국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라고 발표해 왔다. 하지만 채무국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중국의 대규모 차관을 받은 국가들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나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외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상국, 광물자원을 가진 나라 등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 중 하나인 튀르키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서방국 가운데 유일한 이슬람 국가다. 유럽과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까지 더해 튀르키예는 중국의 '정치적 야심'을 펴는 대상이란 해석이다.

남미 최대의 중국 채무국가인 아르헨티나는 '21세기의 석유'라 일컫는 희토류의 보고다. 최빈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일대일로의 주요 축이다. 이 밖에도 라오스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남 등도 이 해관계가 걸려 있는 국가들이다. 문제는 중국이 IMF나 미국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이들 국가에 돈을 빌려준다는 점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괄 적용하는 해외채권 금리는 5%로, IMF의 장기채권 금리(2.5%)나 미국의 단기채권 금리(1%)에 비해 훨씬 이자 부담이 크다.

5%의 고정금리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빚까지 쌓이게 했고, 결국 스리랑카는 돈을 갚는 대신 수도 콜롬보의 인프라 시설 소유권, 항만 지역의 항만 관리 시설 소유권 등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야 했다. NYT는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고금리의 빚을 씌워 채무국 재정과 자원을 장악하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해당 국가를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 美 "반도체 지원금 받으려면 기밀자료 내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수익 예측 산출 공식을 담은 엑셀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적정 지원 규모를 판단하고, 초과 수익 공유분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가동률은 물론 웨이퍼 예상 수율 등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담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27일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재무제표는 반도체

프로그램 심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성과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지난달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절차를 언급하며 기업이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 등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날 발표는 서류를 제출할 때 알아야 할 구체적 내용 등을 지정한 세부 지침이다.

상무부는 특히 예상 현금흐름 등 사업의 경제성을 추산하는 데 필요한 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월 단위 생산능력과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결합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생산 첫해 판매 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 가격 증감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수율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특정 시설의 실제 수율은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초과 수익 공유 조항은 업계가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는 부분으로, 높은 수준의 수익 공유가 정부 지원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암호화폐 살아있는 전설 자오창평, 美 당국에 제소당해... 업계 파장 클 듯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평(사진·46) 최고경영자(CEO)가 2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제소됐다. 미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히는 자오를 겨냥해 처음 칼을 뽑은 것으로, 업계 전체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 CEO에게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가 27일 보도했다. 소장에는 자오 CEO가 상품거래규정(CEA)의 돈세탁 방지 등 핵심 조항 8개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CFTC는 바이낸스가 거둔 불법 이익의 추정과 함께 민사상 벌금,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바이낸스 측은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뿐더러 미국 관할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자오 CEO는 홈페이지에 반박문을 올려 "바이낸스는 미국 사용자를 차단하고 있으며 바이낸스보다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오 CEO는 1977년 중국 장쑤성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캐나다로 이주한 중국계 캐나다인이다. 12살 때인 89년 교수였던 아버지가 중국에서 추방되면서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해 정착했다. 이후 캐나다 맥길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를 취득한 뒤 도쿄와 뉴욕을 오가며 선물거래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다. 암호화폐의 커다란 잠재성을 눈여겨본 것도 이때였다. 자오 CEO는 2014년 전 재산을 털어 비트코인을 산 뒤 3년 뒤인 2017년 7월 중국에서 바이낸스를 설립했다. 중국 정부가 설립 2개월 만인 그해 9월 암호화폐를 불법화하고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면서 중국을 떠나야 했지만 전화위복이 됐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일어나면서 최대 거래소가 됐다. 자오 CEO도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보면 현재 보유 재산이 258억 달러(약 33조5100억원)로 세계 51위 부호다.



VII. 기독교론 (Christology) (4)

3. 왕직

구약의 왕들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예표한다. (삼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사 하라."

삼하 7장은 다윗 언약의 절정을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윗의 왕위는 유다의 멸망(586 BC)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면 이 나라와 이 왕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 직임을 말한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눅 1:31-33), "보라 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분명히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나라는 신약에 오실 메시아의 왕직과 메시아 왕국의 모형과 그림자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사야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보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사야 9:6,7)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구약 시 110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되신 메시아 이심을 다윗의 입을 통해 전한다. (시 110: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다윗의 주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타이틀이 "주" (κύριος)이다.

스가랴 9:9에서도 오실 메시아의 왕되심을 말한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후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많은 곳에서 가르친다 (눅 19:38; 마 21:5; 요 1:49; 행 17:7; 엡 1:20-22; 마 28:18; 고전 15:25; 계 19:16).

고전 15:27; 엡 1:20-22에서 "특별히 만물 (모든 것) 발아래 두신다" 하신다. 여기에 "모든 것 (πάντα)"은 원수들을 포함한 만물이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가 되신다. 주님께서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VIII. 구원론 (Soteriology 혹은 The Doctrine of Salvation)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

질 때에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 믿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을 내적 소명, 혹은 효과적 소명이라 한다.

B. 중생 (Regeneration, Born Again)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중생케 하신다 (거듭남). 중생의 본질은

1)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역이다. 중생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한다. 중생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겔 36:26-27에서도 중생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역이며, 인간은 수동적임을

역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영적으로 죽었기에 영적인 감각 (회개, 믿음)이 없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살려주시기 때문에 (중생) 영적 감각이 생겨,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 성경에는 구원을 위해서 "중생함을 받아라" 명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형태가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형태이다. 왜냐하면 중생은 전적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6) 중생의 사건에는 삶에서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 가운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요일 5: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말은 헬라어 "완료 분사 (perfect participle)"이

개와 믿음은 계속적이며, 반복적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회개의 기도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회개 기도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셨다. 이것은 이미 믿는자들에게 대한 성화에 이르는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과 회개는 지, 정, 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참된 믿음에는 지식 (Notitia;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동의 (assensus)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구원을 위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fiducia).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해야 하며, 나아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오늘날 영어로는 believe 보다는 trust가 더욱 성경적인 의미와 가깝다. 오늘날 일반적인 사실을 인정할 때 믿는다 (believe)라는 말을 많이 쓴다. 예를 들면 "나는 미국의 수도는 Washington D.C. 인 것을 믿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적인 결단이나, 인격적인 신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참된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believe" 라는 용어보다는 "trust" 단어가 더욱 성경의 믿음과 가깝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웨인 그루팜의 조직신학 제 35장을 보라).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마치 손님을 집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believe in Him),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όν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 라는 표현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 (Leon Morris)는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구약 적인 표현에서 사람 앞에 전치사 "εἰς" (안에, in)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이라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회개도 지적 요소 (죄는 나쁘다), 감정적인 요소 (죄에 대해 애통함과 미워함), 나아가서 의지적인 요소 (죄를 끊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결단과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9)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은신 구원 (객관적 사건)을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적용 (주관적 사건) 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구원론을 종종 성령론으로 부른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로 가능하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신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는 성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는 순서가 있다. 이것을 구원의 사정 (the order of salvation, Ordo Salutis) 이라고 한다. 이 구원의 적용 순서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존 머리의 주장에 따라, 부르심, 중생, 회개와 믿음, 침례, 양자 삼오심, 성화, 궁극적 구원, 그리고 영화의 순서이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순서는 "시간순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 (not chronological but logical order)이다.

A.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calling)

1. 외적 소명 (external calling):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전하고, 믿으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2. 내적 (효과적) 소명 (internal or effective calling): 외적 소명이 행해

가르쳐준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라." 중요한 포인터는 중생은 부르심 (소명)의 결과이다. 물론 이 은혜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순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이다.

2) 중생의 본질은 신비적이다.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은 신비적이다. 요 3:7-8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본질을 설명하신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중생이 과정을 알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임을 가르쳐준다.

3) 중생은 우리의 전인적 (whole person)인 변화이다. 지, 정, 의에 영향을 끼친다.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4) 중생은 순간적으로 즉각적인 변화이다. 성화는 많은 과정과 반복적이지만, 그러나 중생은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성취한다.

5) 중생은 믿음 이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Regeneration comes before repentance and faith). 중생의

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중생)" 사건이 새로운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중생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의 (요일 2:29), 사랑 (요일 4:7), 세상을 이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요일 5:3-4),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

C.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 (거듭남)하게 하신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간다.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이며, 믿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회개와 믿음이 어느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같이 온다. 존 머리 (John Murray) 교수에 의하면 참된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 (penitent faith)이며, 참된 회개는 믿음있는 회개 (believing repentance)이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없다.

1)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은 일평생 한 번 (once for all) 일어나는 사건이다. 2) 그러나 성화에 이르는 회

Header for 'Worldwide Church' (해외 교회) featuring a compass and the slogan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새이덴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양곡교회, 양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6)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외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1. 교리 4: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맹세로써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이는 이 진리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사람들에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과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회심하지 않은 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기쁨은 악인들의 죽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사는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히 6:13).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없는 것은 영혼의 다투어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히 6:16-19).

2. 교리 4의 적용

1)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맹세하셨다.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욕하며 거룩한 의무들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다고 말하는 것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왕을 비난하고 왕의 법을 어기며, 왕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기뻐하는 자는 목회자들이 아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섬기고, 미친 듯이 영원한 상태에 대한 모험을 감행하며, 고의로 자신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성실한 선생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와 같은 눈멀고 강박한 마음과 부주의함과 뻔뻔스러움, 또는 악한 의도와 무자비함과 생명과 평화의 길에 대한 저항 등이 드리워진 것을 보는 것은 그들, 선생들에게 있어서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

3)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죄짓는 데 악용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라는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조차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곧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단다. 우리가 비록 잠언 11장 7절에 있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는 말씀을 보여주어도 그들의 거짓된 소망을 버리는 데까지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회개를 미루게 하고, 더 담담하게 죄를 짓게 할 뿐이다.

4) 목회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들 중 몇 사람은 자기들이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서 자신은 이미 회개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들 중 소수는 자기들의 죄를 보고 자백할 것이며 더 소수는 죄를

버릴 것이지만,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스스로 위로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자신들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모든 선생(목회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 우리는 그들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이 불쌍한 많은 목회자들이 가까이 감당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고통과 신음소리이다.

5)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기뻐하는 자는 여러분의 경건한 친구들도 아니다.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기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세 큰 원수인 마귀, 악인들, 여러분 자신이다. 마귀는 참으로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의 모든 유혹의 결정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마귀는 밤낮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마귀를 더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다. 마귀는 당신이 분통 터트리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마귀는 당신의 죄에서 당신을 이끌어 내어 구원받도록 도우려고 하는 목회자를 향하여 당신이 욕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6)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잠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한다.

질문 1: 여러분은 꼭 육신을 만족시켜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통치자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냐?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구원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가질 수가 없다.

질문 2: 여러분의 양심은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육신을 만족시킨다.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몹시 싫어하지 않는가? 또한 때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질문 3: 여러분의 육신은 그 대가를 각오하고 있는가? 육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좋아하느냐? 육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떠는 것과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도록 심판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육신은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죄와 지옥, 또한 믿음과 참된 회심은 분리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가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다른 한 가지를 가져야만 한다. 죽음과 지옥이 당신에게 기쁨이 된다면 당신이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될 수 없고, 죽음과 지옥이 천국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러분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반대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신다고 맹세하라.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는 대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죽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한 것임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서,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끝없는 고통 속에 달려들어 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일 만한 지혜나 마음이나 은혜가 없다면, 또한 그들을 개심시킬 만한 사람들도 없다면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회개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는다.

younsuklee@hotmail.com

시니어 목회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나비가 되는 날

로마서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인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 곤충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견뎌야 하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어미새는 새끼를 잘 부화시키기 위해 사나운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인내로 알을 잘 품어주어야 합니다. 곤충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인내의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봄이 되면 휘황찬란하게 날아다니는 나비입니다. 나비, 참 아름답지요? 날개의 빛이 아주 찬란하고 곱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을 갖기까지 말할 수 없는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나비의 일생은 알의 시기를 지나면 애벌레로, 애벌레를 지나 번데기로, 번데기를 지나 결국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탈바꿈의 과정을 4번 정도 거쳐야 하지요. 한 번 허물을 벗을 때마다 애벌레는 몸도 커지고, 색도 달라지고, 무늬마저 바뀝니다. 허물을 다 벗고 난 뒤에는 딱딱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비가 되기 위해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고치를 뚫고 나와 있는 몸을 말리던 애벌레가 됩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을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일 년까지 겪고 나면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로 언제 잡혀서 먹힐지 모르는 두려움과 네 번이나 허물을 벗으며 성장해야 하는 괴로움, 고치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나비는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번데기 껍질 속에 온몸을 가둬 놓는 암흑의 시대를 거쳐 드디어 아름다운 나비로 온 땅을 날아다니며 고운 자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나비의 인내와 관련해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너무 안타까웠던 나머지 지켜보던 사람이 가위로 고치를 조금 잘라 나오기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에서 나온 나비는 결코 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는 고통을 참는 인내가 없이는 날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내를 통해 찬란하게 이 땅을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는 과정 없이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환한 가운데 있거나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로마서 5:4)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좋은 선물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와 다음 세대에 나타날 소망입니다.

다음세대 성품교육과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NY, NJ, and Hawaii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I need you"

사람들은 누구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택 과목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점 관리할 때 필수 과목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무엇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합니다. 지구촌에는 그 필요를 채우

려는 눈물겨운 이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노력이 범죄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바실리우스는 <내 공간을 할리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을 벗겨 빼앗으면 우리는 그를 도둑이라 부릅니다. 햇빛은 사람에게 옷을 입힐 수 있는데도 입히

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나? 그대가 숨겨둔 빵은 굶주린 이들이 먹어야 할 빵이며 그대의 옷장에 처박아둔 옷은 햇빛은 사람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글에서 부당하게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을 봅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선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명적 존재자임을 느끼게 합니다.

영어에 파워풀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설득하거나 애원하거나 부탁할 때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쓰기도 합니다. 이 말로 만들어진 노래가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름답지만 처절하고 고귀하고 눈물겨운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애원하는 남겨질 입장에 처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I need you> 라는 말입니다.

'아리랑'이라는 민요의 한 대목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말은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라는 한 맺힌 절규인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절규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말입니다.

주님의 소중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교인의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과 같아서 절대로 내 목회 현장에 함께 해야 할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목회 시간 중에 경험하는 것은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중한 이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아픔을 경험하기

도 합니다. 나는 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 보다 네게 내가 더욱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주님에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I need you!> 이 말씀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깊이 파고드는 교훈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cyd777@hotmail.com



2023년 GBC 나눔On캠페인 공개모금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GBC...튀르키예와 시리아 위한 긴급 모금에 16만3천불 모여

한인 교계, 이웃 사랑에 앞장서 마음 모아

이웃과 세상을 사랑과 물질로 섬기기 위해 시작된 미주북음방송의 나눔 프로젝트 '2023 GBC 나눔On 캠페인'이 지난 3월 14일(화)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에너하임에 소재한 미주북음방송국 본사와 LA 지사에서 생방송으로 공개모금이 진행됐다.

이번 나눔On 캠페인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복구와 우크라이나 난민사역,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자선단체 지원을 위한 공개 모금 생방송으로 진행되었고, 남가주 한인성도들과, 교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총 목표액 15만불을 넘는 16만3천불(3월14일 집계 기준)의 성금이 모아졌다. 미주북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에도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의 저력에 감동했고 미주북음방송을 믿고 귀한 물질을 전달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전액 투명하게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GBC 나눔On 캠페인'은 이웃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

한 나눔 실천 무브먼트로 진행되어 왔고 작년에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자선단체들 9곳과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난민, 시리아 난민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세기의 재난이라 불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지원하고 자선단체 10곳을 선정해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4월16일(주일)까지 자선단체의 사역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미주북음방송 홈페이지(www.kgbc.com)의 나눔 On캠페인 지원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나눔과 사역을 하는 단체이면 어디든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10개의 자선단체에는 최대 5천불의 활동비 지원과 물품 지원, 사역에 대한 방송 홍보를 지원한다.

공개모금 생방송은 마쳤지만, 후원 참여를 원할 경우, 이달 말까지 714-484-1190에 전화해 동참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nanum-on@kgbc.com, (714)484-1190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북음방송)



국제 크리스찬 채플린협회 포럼이 녹스 라이브러리에서 열렸다

국제 크리스찬 채플린 협회 포럼

국제 크리스찬 채플린 협회(Christian Chaplain Ministries International, 대표 Chief 전모세 목사) 포럼이 지난 3월 20일(월) 요바리다에 있는 녹스 라이브러리에서 열렸다.

연방정부에 등록된 CCMi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비공식 모임을 가져오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크리

스찬 채플린 협회의 단결과 회원들의 연장교육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오직 정의를 몰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채플린지도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김재연 목사(전 칼빈대 총장)가 설교했다. 이어서 '선교적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란 주제로 써니 김 목사(장신대 교수, 선교학 박사)가 강의에 나섰고 '채플린의 영성'이란 주제로 그레이스전 목사(여성 선교회장)가 강의했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강사 민승기 목사(전 미주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전 갈보리새생명교회 담임)가 '채플린의 윤리', 대표 전모세 목사가 '채플린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관해 강의했다. 현재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 모세 목사는 한인교계를 대상으로 꾸준히 경찰 채플린 사역을 소개하고 한인 목회자들의 참여를 격려해 오고 있다.

전 모세 목사는 현재 오렌지 힐스 한인교회 담임, 미주북음주의 장로회 총회 총회장, 라하브라 경찰국 경목, 국제 크리스찬 채플린 협회 Chief를 맡고 있으며 전 오렌지카운티 세리프교정담당 경목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CCMi 대표 Chief는 전 모세 목사, 회장 김재연 목사, 고문 에드 루터포드 목사, 민승기 목사, 그리고 사무총장은 유의상 목사가 맡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강순영 목사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기도한다

"성령강림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제3회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가) 열렸다. 지난해 9월에 시작된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 대회는 2개월에 한 번씩 가주 부흥성지 순례 기도회로 모인바 있다. 제3회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에는 90여명의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 부흥과 남가주의 영적 대 각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제3회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 중심주제는 에즈베리 부흥운동이었으며 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가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현장을 방문한 보고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한 보고를 맡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는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을 소개하면서 현재 나타나 현상을 성경적으로 조명했다. 강목사는 사도행전에 성령강림이 네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제시하며 "이런 성령강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기도회는 감사한인교회 기도팀(리더 전영숙 전도사)과, 은혜한인교회 기도팀(전혜숙 목사), 주님세운교회 기도팀(홍신우 목사), 나침반교회 기도팀(민경엽 목사), OC 교협(심상은 목사), 청교도중보기도팀(강태광 목사),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강순영 목사), CBS중보기도팀(안현숙 전도사), CMF중보 기도팀(김철민 장로), Soon Movement(이민규 목사) 등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이 사역에 동역할 중보기도팀들과 교회 기도사역팀을 찾고 있다. 중보 기도팀 연합기도에 관한 문의는 강순영 목사(310-995-3936)와 강태광 목사(323-578-7933)에게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남가주중보기도팀연합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details. Includes a table for subscription rates by region.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3차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2023년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위한 3차 준비기도회를 4월3일(월) 오전 10시30분에 기쁨과 영광교회(전희수 목사, 권캐더린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뉴욕늘기쁜교회, 선교부흥회**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 선교부흥회가 3월31일(금)부터 4월2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조용성 선교사(북사이프러스주제)이다. 시간은 금, 토 오후 8시이며 주일 오전 11시이다.  
 ▲문의: 718-359-0691

**퀸즈장로교회, 부활절 찬양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4월9일(주일) 오후 4시에 "마지막 시간, 영원한 승리"라는 주제로 부활절 찬양제를 개최한다.  
 ▲문의: 718-886-4040

**뉴욕센트럴교회, 부활절 뮤지컬**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4월9일(주일) 오후 1시에 'Behold the Lamb of God!'라는 주제로 부활절 뮤지컬을 공연한다.  
 ▲문의: 516-387-9940

**뉴욕갠세마네교회,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뉴욕갠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는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2월22일부터 4월7일까지 5시30분에 계속 진행하고 있다.  
 ▲문의: 516-520-2004

**샬롬교회, 뉴욕여성집회**  
 샬롬교회(양미림 목사) 뉴욕여성집회가 4월13일(목) 오후 7시30분, 4월19일(수)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강사는 세종은누리교회 선우권 목사이다.  
 ▲문의: 646-207-7525

**영생장로교회, 여름학교(PA)**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 여름학교가 7월5일부터 7월11일 6주간 진행된다. 등록은 4월8일(토)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웹사이트 yspc.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Michael Hoi 목사/강지연 전도사 ysummer-school@gmail.com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각 교회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4월3일(월)부터 4월8일(토)까지 오전 6시에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문의: 718-706-0100

**베이스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4월3일(월)부터 4월15일(토)까지 오전 5시45분에 "하나님의 공정을 사모하라(시 84:2)"는 주제로 특별새벽부흥회를 갖는다.**  
 ▲문의: 718-229-0858

**보스턴장로교회(담임 장성철 목사)는 4월3일(월)부터 4월8일(토)까지 오전 5시30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문의: 508-435-4579



뉴욕목사회 선교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 했다

##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선교세미나

### 강사 조용성선교사, 튀르키예 성금 전달식도 가져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 선교세미나가 '이슬람 선교를 위한 선교세미나'라는 주제로 3월27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 목사)에서 개최됐다.

정관호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안경순 목사의 찬양인도와 김영인 목사의 기도, 박희근 목사의 강사소개가 있는 후, 조용성 선교사(북사이프러스주제)가 단애 올랐다.

조용성 선교사는 "지금 현대의 이슬람이 근본주의 이슬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지금 이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며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욕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선교지이다. 이곳에는

전 세계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터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통성기도를 한 뒤 김홍석 목사(회장)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성금 후원 단체인 21세기희망재단(변종덕 이사)과 뉴욕사모기도회를 소개했으며 28개 교회와 함께 모금한 49,920불을 액수만 조용성 선교사에게 전달하고, 실제 금액은 개신교 터키 공동구좌에 송금한다고 말했다.

조용성 선교사는 "송금을 받은 후 교회지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보고 하겠다"고 말하며 "터키에 있는 교회와 6만3천명의 희생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광고 후 한준희 목사(뉴욕성원장로교회)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 해병대 사령관 출신 전도봉 장로

### "그러나 해병은 영원하다" 출판감사예배

22대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 장군의 "그러나 해병은 영원하다" 출판감사예배가 3월 21일(화) 오전 11시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열렸다. 전도봉 장군(81세)은 서울에 있는 예방통합 영암교회 은퇴장로이다. 전 장군은 해병대에서 전설적인 화제의 인물이었다가 전역하고 2007년부터 정계에 입문했다. 출판감사 모임은 예상을 넘어 뉴욕 교계와 사회를 초월하여 1백 명이 훨씬 넘는 많은 인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인도 이종명 목사, 대표기도 박진하 목사, 설

교 방지각 목사, 축도 김명옥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 목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사무엘상 17:47~4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2부 저서발간 축하순서는 김용길 신부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도봉 장군은 "군인으로서 모르지만 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한데, 과분하게 대우해 주셨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참가자 모두에게 봄의 새싹처럼 행운과 기쁨이 솟아나기를" 축복했다.

뉴욕목사회 회장 김홍석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해병대에

## 2023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 교협산하 16개 지역 예배 장소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 2023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4월9일(주일) 새벽6시에 교협산하 16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지역별 예배 장소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교협총무 유승례 목사(845-848-2013), 준비위원장 권캐더린 목사(646-247-8258) 문의하면 된다.

지역	장소	지역장	설교자
1 Corona Woodsid	뉴욕장로교회 (오전 10시)	김학진 목사	김학진 목사
2 Elmhurst Sunnyside	퀸즈한인교회	김마나바 목사	전희수 목사
3 Flushing 1	뉴욕양무리장로교회	김봉규 목사	허 길 목사
4 Flushing 2	뉴욕선한목자교회	박이스라엘 목사	박준열 목사
5 Flushing 3	프라이스교회	박성원 목사	허연행 목사
6 Flushing 4	가나안임성교회	김희숙 목사	김여호수 목사
7 Fresh Meadows	퀸즈한인교회	이창종 목사	미정
8 Bayside	뉴욕베데스다교회	김원기 목사	유상열 목사
9 리플랜드/웨체스터 Bronx	새은교회	김홍선 목사	김홍선 목사
10 Staten Island	베델장로교회	김경환 목사	김경환 목사
11 Manhattan	뉴욕한인교회	최현덕 목사	최현덕 목사
12 Brooklyn	브루클린제일교회	이윤석 목사	이윤석 목사
13 Long Island 1	뉴욕예일장로교회	이지용 목사	김종훈 목사
14 Long Island 2	아름다운교회	계재광 목사	계재광 목사
15 Long Island 3	뉴욕센트럴교회	김경열 목사	방지각 목사
16 Long Island 4	뉴욕성서교회	김종일 목사	김종일 목사



출판감사예배에서 전도봉 장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해 가장 좋아하는 말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다. 바다에서 귀신잡는 일이 많이 했으니, 이제는 장로로서 공중권세를 잡으려는 사탄을 잡는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리고 빌립보서 2: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답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으로 축복했다.

김홍석 회장 외에도 뉴욕교계에서는 허길, 황경일, 박태규, 신현택 등 교협과 목사회 증경

회장들이 축사를 했다. 해병대에서는 뉴저지전우회에서 한재영 해병, 뉴욕해병대장교단에서 이광남 해병이 서평과 축사를 했다. 한인사회에서는 김영덕, 변종덕, 김기철,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 회장들이 축사를 했다. 성음크로마하프단의 축하 연주와 노기송 목사의 마침기도 후 오찬이 진행됐다.

전도봉 장군의 저서로는 <그러나 해병은 영원하다>외에도 <앞서가는 최강 해병대>, <그대 이름은 해병대>, <지휘관의 편지> 등이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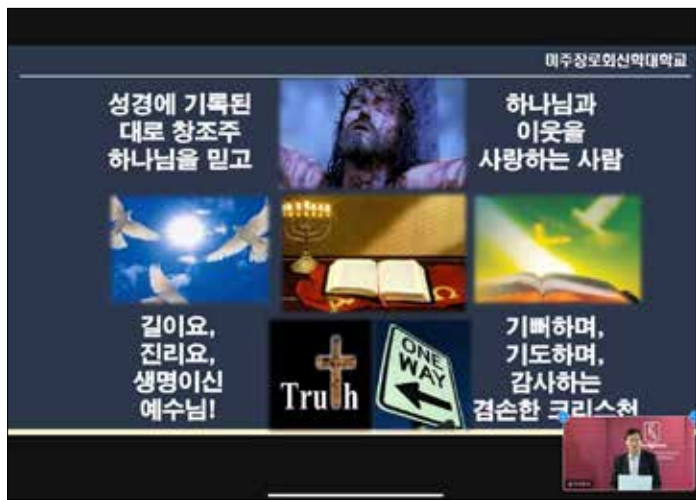
<p><b>갈보라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다민족 교회</b>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821112, estroso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3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b>벨렐교회</b>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단애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1234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화, 목, 금, 토, 일, 주일, 주일부흥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b>새생명인교회</b>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423-9700, Cell: (213)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b>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b>          담임목사: 차용오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Tel: (703)821-9235, www.pcan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b>일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8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토요일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635-1842(H), (254)501-4833(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8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841-4447, www.mpcov.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k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미주장신대 2023 봄 학술세미나

##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 유, 말씀으로 창조”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2023 봄 학술세미나가 '창조, 신앙, 과학과 복음'이란 주제로 24일(금) 오후 4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석좌교수인 한윤봉 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미국세라믹학회(ACerS), 국제접단재료학회(IAAM) 펠로우)가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한윤봉 교수는 “성경적 창조신앙은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는 신앙”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성경적 창조는 6일 창조이다. 6일 창조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을 믿지 못하게 된다”며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사실이라면 창조의 지혜와 설계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아름다움과 질서



미주장신대 2023 봄 학술세미나에서 한윤봉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와 조화는 진화론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일곱 번 나온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움직이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

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 유,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창조의 결과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성숙한 창조였다. 어떤 진화과정도 필요 없다는 것이며 피조세계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양성동물들

중 동성끼리 교배하는 동물은 없다. 오직 인간만이 죄성으로 인해 동성애를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동성애 유전자가 주어진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화론의 기본 가정은 우연히 생명이 자연발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연을 전제로 연구하는 과학자는 없다”라며 “생명의 자연발생은 실험과학적으로 부정되었다. 1859년 파스퇴르진화방법은 변이의 축적과 자연선택이다. 하지만 이는 유전공학 정보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돌연변이는 해로운 방향으로 발생한다. 자연은 변이 개체에 우호적이지 않다. 돌연변이는 같은 종류 내에서만 발생한다. 진화론이 성립하려면 대진화가 성립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깊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조영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OC목사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단례사진을 찍고있다.사진 앞쪽 왼쪽에서 세번째가 회장 이원석 목사

# 머무는교회 조영석 목사 초청 찬양예배 드려

##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의 삶을 살자”

머무는교회(담임 김문수 목사)는 찬양사역자 조영석 목사 초청 찬양예배를 26일(주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문수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벤자민 전도사가 기도했다. 이어 조영석 목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사 43:18-2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영석 목사는 “초등학교 때 가정이 깨어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가정이 깨어진 상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지만 극복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뒤 모든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게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황하던 시절에도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찬송할 이유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찬양할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의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 없다. 우리는 증인들이다. 전도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닌 내 온 맘과 진정성 다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세상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조영석 목사는 ‘십자가 그사랑’ ‘주님의 품으로’ ‘새날’ ‘주의 임재안에서’ ‘참아름다워라’ ‘은혜’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조영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브라비 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 2023 브라비 합창단 정기연주회

브라비 합창단(지휘 이경원) 2023 정기연주회가 다시 돌아온 봄'이란 주제로 3월 26일(주일) 오후 6시 성광리에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쁨이 솟아나는 봄', '사랑이 시작되는 봄'이라는 제목으로 연주됐다. 또한

테너 오위영, 바이올리스트 황여주가 찬조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걱정말아요 그대', '고향의 봄'을 앵콜곡으로 부르며 마쳤다.

(박준호 기자)

# OC목사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 “목사는 섬기는 자, 거룩을 회복해야 진정한 섬김 가능”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제 45대 회장 이취임식이 3월27일(월) 오전 11시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이원석 목사는 “45대 목사회 회기동안 OC지역 목회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목사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며 “목사회를 위해 기도와 격려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 정찬군 목사(예심교회)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예배는 서기 박정기 목사(더락한인교회)가 기도했으며 부회장 강문수 목사(사랑성결교회)가 특별 찬양했다. 이어 주원호 목사(증경회장)가 '섬김(마 20:2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주원호 목사는 “사랑은 섬김으로써 행해지는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근본 목적”이라 말하며 “목사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이다. 섬기는 것은 자기를 낮춰야 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섬기는 자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변화가 되어야 하며 거룩을 회복해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고 진정한 섬김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은 목사(OC교협회장/갈보리선교회)가 축사했으며 박용일 목사(남가주임마누엘교회)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박용일 목사가 이취임을 했으며 이원석 목사(하사랑교회)가 신임목사회장 인사와 심임임원단을 소개했다. 이날 예배는 손태정 목사(OC목사회 증경회장/주성선교회) 축도로 마쳤다.

목사회 2023년 행사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7시 월례회 및 기도회, OC교협 및 기독교단체들과 협력사역, 은퇴 및 원로목회자들 위로행사, 목회자 친목 및 세미나 개최, 목회자 아버지학교 개설 등이다. 다음은 2023 목사회 임원이다. △회장: 이원석 목사(하사랑교회), △부회장: 강문수 목사(사랑성결교회), △총무: 정찬군 목사(예심교회), △회계: 신인철 목사(수마교회), △서기: 박정기 목사(더락한인교회)

(박준호 기자)



영아티스트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마치고 단원들이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영아티스트오케스트라 연주회

영아티스트오케스트라(지휘 다니엘스) 연주회가 3월25일(토) 오후 4시 성공회가든그로브교회(담임 토마스 신부)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Intermezzo from Opera 'Cavalleria Rusticana', Oblivion by A. Piazzola,

Romeo and Juliet Fantasy by Tchaikovsky가 연주되었다. 한편 이날 첼로양상봉, 드림섹스폰텐드 스트링 챔버 등이 찬조 출연하여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남가주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부활절연합새벽예배가 부활주일인 4월9일에 열린다. 오렌지카운티지역은 소스몰에서 오전 5시30분에 열리며 LA동부지역은 오전 5시30분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LA중부지역은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최형규 목사)에서 오전 6시 열린다.

▲ 문의: (714)722-4805, (626)810-3455, (562)653-0168

##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겔 37:5)'라는 주제로 오는 6월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알칸사 제자들교회(담임 전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목회자(사모), 평신도,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의 참석 인원은 200명(선착순)이며 등록은 1차 \$100(5월1일까지), 2차 \$150(5월31일까지)이며 등록비 제출 시 pay to NYSKC-AR로 하면 된다.

▲ 문의: 곽인영 전도사 (501)554-9647, inykwak@gmail.com

## 벨뷰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노회 소속 벨뷰한인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청빙요건은 KAPC소속이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목회하고자 하는 영어소통이 가능한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학력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및 2인 이상의 추천서, 자기소개서(목회철학, 비전, 목회계획 포함), 최근설교영상 2편(온라인 링크와 원고)이다. 제출마감일은 4월29일까지이며 모든 서류는 이메일(bellvuekpc@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 문의: bellvuekpc@gmail.com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사역자 청빙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유초등부 사역자(파트타임)를 청빙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신앙간증, 소명, 목회경험, 가족소개), 목회자 추천서 1부이며 사례는 면접시 안내하게 된다. 청빙마감은 오는 4월30일까지이며 모든 서류는 이메일(Kcoffice2@gmail.com)로만 받는다.

▲ 문의: (714)893-1652

##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사역자 청빙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용철 목사)는 교육담당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를 청빙한다. 청빙대상 및 자격은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사역자로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탁중인 자, 교회음악 담당자는 교회음악 전공자로,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한 미국 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영주권 후원 가능)이다.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신앙고백서, 사역경험), 신대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또는 소속교단 증명서, 추천서 2부(현재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 및 평신도 리더 추천서), 설교 2편(설교주 소문장 혹은 DVD 나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가족사진이다. 모든 서류는 우편(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이나 이메일(kcalvarylv@gmail.com)으로 5월31일까지 보내면 된다.

▲ 문의: (702)296-9193



가정폭력 40시간 교육 참여자

#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실시간 화상수업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염)는 지난 3월6일부터 3월17일까지 한인종교지도자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해 진행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인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개설했다.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일 섹스폰텐드 스트링 챔버 등이 찬조 출연하여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기관이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이번 교육 수료생 중 현재 목회를 하고있는 C 목사는 "한인 이민사회에 이렇게 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나는지 몰랐었는데 이번 훈련과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 내의 교인들에게 건강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 사역을 하고있는 J 전도사님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리소스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교회 내에 이런 세미나가 많이 오픈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물론 1박 2일 목회자 수련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213)235-4864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 1억3700만원 튀르키예 구호금의 비밀 아름다운 십시일반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에 2차에 걸쳐 약 1억3700만원의 구호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름다운가게는 전국 매장 바코드 모금과 네이버 기부사이드 '해피빈', 긴급구호 페이지를 통해 모인 기부금과 특별 판매원의 구호금으로 조성된 최근 2차 긴급 구호금을 현지 파트너인 에이팟코리아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구호금은 현지 세탁 시설과 위생용품 키트 제공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지난달 27일 5여톤의 물품을 1차로 지원했다. 1.2차 총지원금액 규모가 1억3700여만원이라고 밝힌 아름다운가게는 "모든 시민이 물품 기부, 봉사, 구매로 십시일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가게 장윤경 상임이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물품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름다운가게는 2003년부터 국내외에서 긴급구호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이재민을 돕는데 힘을 모았다.



### "말겨진 땅과 열방을 위해"

#### 한국 방문한 크리스천 외교관들의 뜨거운 기도

대사로 나가있는 그 땅과 열방에 우리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이끄는 인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은 외교통상부와 함께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2023 재외공관장 초청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도회에는 조태용 주미대사, 윤여철 주영대사, 유명한 전 외교부장관 등을 비롯해 해외 주재 공관장 및 외교부 선교회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 개최하는 연례 기도회로 해외에서 국위선양에 힘쓰는 크리스천 대사를 위한 격려의 자리이다. 1995년 시작돼 2018년까지 매년 3월에 기도회를 개최해왔지만, 코로나19로 재외공관장의 회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도회도 멈췄다. 이날 5년 만에 재개된 '재외공관장 초청 조찬 기도회'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재외공관장 대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천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였다. 정경화 외교통부 동남아 2과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최영삼 차관보의 기도, 외교부 선교회의 특송,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성경을 봉독했다.

김장환 목사는 '대사의 사명'(롬 12:9~13)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대사로써 맡겨진 주재국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며 "대사로써 맡겨진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찾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대사로 나가 있는 그 땅과 민족을 위해 늘 기도를 아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강대수 주 에콰도르 대사는 "5년 만에 재개된 '재외공관장 초청 조찬 기도회'에서 크리스천 대사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에 주신 소명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오늘 예배가 끝이 아니라 각 지역별 공관장들끼리 좀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나가고픈 도전이 생겼다"며 "우리 대사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말했다.



### 한국 선교의 발자취 따라가는 한걸음 순례길

#### 아시아미션, 5부작 한국 성지순례 기획영상 공개

아시아미션(AM·대표 이상준 선교사)이 유튜브 채널 'AM(아시아미션)'을 통해 한국 선교역사의 성지순례를 담은 기획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목사와 떠나는 한걸음 순례길'은 5부작으로 구성됐다. 지난 17일 1화 '선교 한국의 출발지, 제물포'를 시작으로 2화 '선교 한국의 새로운 희망, 정동'이 각각 공개됐다. 매주 유튜브를 통해 강화도, 철원, 제주편이

순서대로 공유될 예정이다. 성지순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동원 지구총교회 원로목사는 "한국 선교 역사 속에 새겨진 많은 증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정리·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작을 맡은 이상준 대표는 "2년 동안 방문한 전국 각 지역의 선교 역사를 이 목사님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기획 영상들은 교회 선교단체 캠퍼스 등의 한국 선교역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일본과의 대화는 필요, 국민 이해 구하는 건 숙제"

#### 한교총 대표회장단 부활절 목회서신 발표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단(대표회장 이영훈·공동대표회장 권순웅 송홍도 목사)이 다음 달 9일 부활절을 앞두고 발표한 목회서신에서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과 대화하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과 미래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다만 국민 감정을 녹여내며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건 정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밝혔다.

서 "용서하되 잊지 말자"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의 발언에서 지혜를 얻자"고 했다. 한편 극단적 분열과 불신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라"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권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했다.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일제는 폭압으로 왜곡된 문화와 정의를 이식했지만 동북아의 지정학적 파고를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중심을 잡고 주변국을 상대해야 한다"면

분열에 대해서는 먼저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대표회장단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인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를 인용하면서 "악을 징치하고 선을 장려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보호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도하자"고 했다.

이단사이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표회장단은 "최근 우리는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한 사이비 이단의 폐해를 접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미 20여 년 전 그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을 들어 이들을 이단 사이비로 정죄했다"면서 "지금도 또 다른 사이비성 인사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3·1절을 일장기를 내걸며 자기 논리를 합리화했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표회장단은 "고독사가 많아지는 세상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고 인구절벽 시대,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면서 "우리의 이웃인 장애우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노숙자, 탈북자,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삶을 축복한다"고 인사했다. 한편 한교총은 부활절 오후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한다.



### 피영민 목사, 한국침례신학대 총장 취임

#### 교단과 학교의 연합, 목회자 양성 및 평신도 지도자 배출 등 포부 밝혀

한국침례신학대(총장 피영민)는 제15대 총장에 피영민 목사가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피목사는 지난 23일 대전 유성구 집신대 교단기념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족한 중에게 커다란 직임을 맡겨주신 하나님

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작금의 시대가 여러 난관과 어려움을 주고 있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 신임 총장은 캠퍼스 확장, 교단과 학교의 연합, 목회자 양

성 및 평신도 지도자 배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총회장을 지낸 안희목 멀티꿈 의교회 대표목사는 '살리는 리더'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지금 생존을 위한 골든타이에 직면해 있다. 침신공동체가 모두 살리는 리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권면했다.

피 총장은 1953년 인천 출생으로 서울 중동고, 고려대 법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침신대 신대원에서 목회학석사, 미국 뉴올리언스침례신학교에서 역사신학 전공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2대 목사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 피종진 목사 4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겸 문화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토) 오후 2(주) 저녁 3(월) 저녁 4(화) 오전 6(목) 오후 7(금) 오전 9(주) 새벽 9(주) 오후 10(월) 오후 11(수) 저녁 13(목) 저녁

국제선학교(T.S.) (이사장 강영준) 010-9260-1091 KC Enterprise Blessing 공주 팔복교회 (최명자 목사) 010-5353-7756 서울 에바대교회 (정군자 목사) 010-3403-9190 영동회 1배 서울 FUN 목회교회 (이광재 목사) 주최 : 한국기독교 영동회 부총서 연수원 (대표회장 배용신 목사) (032) 421-4560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교육관 주최 : 한미연합부흥사협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기범 목사) 010-2238-3999 서울 강남반석교회 (김사광 목사) 010-8331-3431 오산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오산시 문화회관 주최 : 오산시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 신상철 목사) 010-7625-0747 김포 강림교회 (조경숙 목사) 010-8222-1992 부활절 연합예배 대한예교성교회 (한영) 동서울노회 (노희정 신영호 목사) 장노회 서울 동천교회 (이성철 목사) 청주 안대목교회 (이창성 목사) 010-8441-0196 전주 주영광교회 (전오관 목사) 010-2445-1691 주최 :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개혁) (대표총회장 남보석 목사)

제 229차 해외성회 (229th Overseas Assembly)  
미국 (USA) 하와이 VISION 교회 (정형준 목사)  
"제6회 세계여성지도자 하와이 컨퍼런스"  
6th World Women Leaders Conference in Hawaii  
장소 : 미국 (USA)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및 CBS 하와이 방송 rostrum, 현지교회  
주최 : 기독교여성신문사 (회장 최금숙 교수, 발행인 대표 김화숙 목사)  
협찬 : 미주 기독교방송, CBS 하와이 방송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공동대표회장 이기도 목사 최기성 목사)

23(주) 오전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4(월) 오전 KAI/CAM 목사 안수식 (연합회장 김승욱 목사) 분당합동루마교회 (02) 3673-1323~6  
24(월) 오후 서울 강남순주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27(목) 오후 오산시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주최 : 작은자 성김교회 (대표회장 양우식 목사) 010-8839-8899  
28(금) 오전 서울 강남반석교회 (김사광 목사) 010-8331-343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 '건강한' 대학 기독 동아리들이 뜬다

#### "JMS 공포증?... 위기를 기회로!"

개강과 함께 주요 대학들의 기독동아리들도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동아리 박람회와 개강예배, 찬양사역팀 초청 집회,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학생 모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국대학선교회(CCC) 서울지부 대표인 김문찬 목사는 26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캠퍼스가 활력을 찾았다. 각 캠퍼스마다 동아리 박람회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건국대 CCC는 지난 16일 찬양사역팀 아이자야스티윈과 함께 오픈 위업을 개최했다. 당초 예상 참석인원은 최대 150명 정도

였는데 2배 넘는 350명이 참석했다. 박은규 간사는 "현재 비기독교인 학생 40여명과 연결이 닿아 관계를 쌓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송실대 CCC와 고려대 IVF(한국기독교 학생회)는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해 3년 만에 대면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팬데믹 기간 중 단했던 MT도 재개했다. 송실대 CCC 이창민 간사는 "매일 3~4명의 학생이 가입하고 있다. 이달에만 40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최근 불거진 JMS 이단·사이비 논란은 기독동아리들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김 목사는 "중양동아리에 소속된 기독선

### 이영훈 목사 "싱가포르 교회 1년 안에 큰 부흥 온다"

#### 한국 인도네시아 이어 싱가포르도 "부흥의 파도 타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한 데 이어 지난 25일과 26일 싱가포르의 대표적 인 교회인 시티 하베스트 처치(CHC)가 주최한 특별성회에서 "1년 안에 싱가포르 교회가 회복될 것이며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부흥의 물결에 동참해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계적인 청년 사역자로 잘 알려진 봉희 목사가 목회하는

싱가포르 시티 하베스트 처치가 이영훈 목사를 특별강사로 초청해 개최한 이번 특별성회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해 싱가포르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행사를 주최한 봉희 목사는 "세계 최대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며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싱가포르와 시티 하베스트 처치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26강(신명기 1-9장) 모세의 1차 설교를 중심으로 (1)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고, ‘레위기’는 가나안 밑에 위치한 ‘시내 광야’에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의 삶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도 가나안 오른쪽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서(신 1:5, 29:1, 34:8) 과거를 회상하며 앞으로를 준비하는 기록인데 레위기보다 더 많은 내용입니다. 이미 모세는 민수기에서 그의 죽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후계자로도 다 세웠습니다(민 27:12-23). 이제 모세에게 남은 사명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잔소리’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3번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으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기록의 압축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홍해를 건너 이곳 모압 평야에 오기까지 40여 년간의 시간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무엇

보다도 ‘가나안 정탐’입니다. 이미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신 1:8)였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전달하였지만(신 1:20,21)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신 1:22)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이미 애굽에서도 홍해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왔듯이 가나안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여 내린 결론’은 ‘못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신 1:26-28).

모세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 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 이 곳까지 이르게 하겠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신 1:30,31,33)고 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외쳐도(민 13:30, 14:6-9)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신 1:32)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오직 가나안에 있는 ‘장대한 백성’과 ‘큰 성읍’, ‘아낙 자손’들의 이야기만 귀에 들어왔습니다(신 1:28).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신 1:35) 광야로 들어가야 했으며(신 1:40)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신

1:37) 오직 여호수아(신 1:38)와 갈렙(신 1:36)만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신 1:39)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신 1:41)하고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거리낌 없이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패배뿐입니다(신 1:41-44). 그들은 패배 후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다(신 1:45).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바꾸어 우리 뜻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추는 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한 자들은 모두 지파의 지휘

관들이었습니다(민 13:2). 그래서 모세는 이 정탐꾼 사건을 회고하기 전에 지파의 수령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받는 자들을 택하라’(신 1:13)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잠 9:10) ‘지식의 근본’임을(잠 1:7) 말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

였습니다(신 34:9).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가나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국’을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은 절대로 탐내서는 안됩니다. 에서의 자손의 기업인 세일 산도(신 2:1-6)

롯의 자손의 땅인 모압 족속의 땅도(신 2:8-12) 암몬 족속의 땅도(신 2:19-21)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의 땅과(신 2:24-36) 바산 왕 옥의 땅은(신 3:1-11)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신 땅입니다(신 2:24,30,31,32,36, 3:23).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십니다(신 3:12-20). 하나님이 ‘하락’하시고 하나님이 ‘가라’하시며 하나님이 ‘하라’하시는 전쟁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신 3:22)고 하십니다. hfamilyfa@gmail.com

사역자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갈..

(3면에서 계속)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도 하고 남자 화장실에서 잤다.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둔 가족은 5피트 짜리 높이의 옷장 안에 끼어서 생활했다.

제임스는 겨우 1년 전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제임스가 러시아 점령지에 가족과 함께 남기로 선택한 것은 특별하다. 보통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목사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 함께 떠났거나 가능한 한 오래 머물렀지만 결국 떠나갔다.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오늘, 떠난 많은 목회자는 돌아갈 교회가 없다. 그들의 신도들은 흩어졌고, 교회 건물들은 파괴되었으며, 전쟁으로 고통 겪은 신도들은 목사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고아 목사’라고 부른다”고 세계 최대 개신교 단체인 우크라이나 침례교 연합회 회장인 발레리 안토니우키가 말했다. 안토니우키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2,100여 명의 침례교 목사 중 약 200명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 200명 이상이 군 복무에 소집되었다. 많은 사람이 다른 교회로 재배치되어야 했지만, 대피한 사람들의 절반은 돌아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와외 재통합이 “고통”이라고 안토니우키가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떠난 것에 대해 원망하고 상처받은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을 걱정하는 교인도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많은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남아 있던 일부 목회자들이 러시아군에 체포·협박·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신도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파벨 스몰야코프는 헤르손주의 침례교 교회의 목사이다. 그가 다니는 교회인 갈보리침례교회는 헤르손에서 대표적인 교회이다. 침략이 있는 지 하루 만에 갈보리침례교회는 지역 보육원에서 4개월에서 네 살까지의 고

아들 46명을 데리고 왔다. 러시아군이 그 지역을 폭격하고 있었기에 이 보육원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달 동안, 교회는 아이들을 지하에 피신시켜 보호했다. 교회 성도들은 아이들을 먹이고, 청소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들 중 어떤 아이들은 특별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필요한 약, 우유 및 기타 유아용품을 조달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도시 전역에서 돌아왔다.

스몰야코프는 불안한 아이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다. 러시아 군인들은 아이들을 전쟁을 선전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했다. 지속적으로 관계자들은 교회 문을 두드렸고, 직원들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누가 이곳의 책임자인지 왜 그들은 이 고아들을 데리고 있는지 추궁했다.

그리고 부활절 일주일 전이었던 어느 날, 아침에 제복을 입은 러시아 관리가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나 스몰야코프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남아 있는 보육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보육원으로 데려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군인들이 고아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겠다고.

목사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고, 예상했듯 목사는 위협을 받았다. 스몰야코프는 그의 사진이 러시아 TV에 나왔다고 말했다. 러시아인들이 인신매매범으로부터 고아들을 구조했다고 주장하며 그 교회가 미국 암시장에 아이들의 장기를 팔아넘겼다고 비난했다. 스몰야코프는 “그때부터 생명이 위협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4일에 걸쳐 러시아 검문소를 피해 오데사로 몰래 빠져나갔다.

헤르손주 주지사가 보낸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마지막으로 목사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 아이들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합병한 크림반도 지역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스몰야코프의 이야기를 듣다가 두 아이의 부모이기도 한 젊은 목사인 우리 쪽 통역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닦았다.

스몰야코프에게는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지금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많은 우크라이나인과 마찬가지로 대피하기로 선택한 우크라이나 사역자들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들은 남겨진 사람들을 걱정한다. 한 목사는 러시아군이 주일 예배 도중에 교회를 폐쇄하고 집을 살살이 뒤져서 지난 9월 점령당한 도시를 탈출했다고 했다. “그것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피했지만 노인 200여 명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다.

아직 점령지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명을 요구한 이 목사는 현재 사실상 노숙자가 돼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러시아군이 점령할 수 있는 자신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일종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온라인에서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로 대피한 교구민들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

(6면으로 계속)

그는 “신학교에서는 점령당한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역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한 목사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제임스의 교회에서는 장로 5명 중 3명이 헤르손을 떠났다. 찬양대, 주일 학교 교사, 청년목회자 등 목회 지도자 대부분이 사라졌다. 침략 초기 교회에는 수십 명의 봉사자가 지도자들의 일임을 대신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더 많은 사람이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배고프고 절망적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 모였을 때, 제임스는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꼈다. 몇 달 동안 전기도, 더위도, 물도 없이 유난히 추운 겨울을 견뎌왔을 주변의 외판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가 돕지 못한 점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서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한결같은 교회 자원봉사자들을 본다. 그는 오늘 감당할 일을 하기에 충분히 채워주셨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그들의 존재는 죽 시 말을 멈추고 눈을 닦았다.

스몰야코프에게는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지금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하며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 이든 도운 20대 두 청년이 있다. 지난 일 년 동안, 그들은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 둘 다 러시아인들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요청했다).

형클어진 짙은 수염과 열정적인 눈빛, 검은 청바지를 입고 ‘간달프’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40대 제임스는 그들과 묘한 삼인조가 된다. 그중 한 명은 끊임없이 제임스 목사를 놀리며 농담을 한다. 다른 한 명은 붉은 머리카락 색에 안경을 썼고, 단 것을 좋아하는 날씬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사려 깊은 사람이다.

이들은 교회 지하에 있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두 청년이 돌아가며 밤에는 위층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청년 중 한 명이 내게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도 헤르손에 남아 있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화요일, 섬이 있는 교회에 합판을 가져다주기 위해 제임스와 동행했을 때, 그 청년 두 명이 함께 탔다. 목사의 오래된 밴에는 뒷좌석이 없어서, 청년들은 허들리는 플라스틱 아동용 의자에 앉아 이동했다.

이렇듯 고아처럼 신도 없이 남겨진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도들이 떠난 교회 건물도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다. 그 교회의 목사는 침략 첫날 가족과 함께 피신했다. 그 교회의 신도들 대다수도 도망쳤다.

제임스는 공식적으로는 목회자 자격이 없는 음향 엔지니어 교인 한 명에게 이 교회의 리더쉽 자리를 맡겼다. 엔지니어 네보드(가명)는 길 건너 아파트에 더위도, 물도 없이 유난히 추운 겨울을 견뎌왔을 주변의 외판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가 돕지 못한 점이 마음이 아프다.

그가 어느 날, 발전기를 끌어와 건물에서 600대의 휴대 전화를 충전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포격 중에도 약 200명의 사람들이 지하에 대피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제임스는 “이제 네보드는 목사입니다.”라고 말했다.

네보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닙니다.” 그가 격하게 부인

했다. “목사는 아니고 자원봉사자입니다.”

“맞아요, 당신은 목사입니다.”라고 제임스가 재차 말했다. 제임스가 구를 번역기에 우크라이나어를 입력하고 나에게 그의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희생하는 사람”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임스가 네보드를 향해 손짓했다. “네보드는 이곳에서 9개월 동안 무부소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9개월, 러시아가 헤리손을 점령한 기간. 그 상황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수많은 일을 겪었다.

헤르손은 침공 이후 전쟁이 시작되자 거의 곧바로 몰락한 최초의 핵심 도시이자 러시아군이 점령한 유일한 지역 수도다. 한때 풍요로운 농업 토양을 가진 번창하고 경제적인 중심지였던 도시는 하룻밤 사이에 유령 마을이 되었다. 몇 달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안에 숨어 지냈고, 필수품을 찾으러 나갈 때만 잠시 서둘러 나갔다. 이른 오후 시간에도, 거리는 떠돌이 개들만 돌아다니는 뿐 텅 비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본다”고 한 목사는 나에게 말했다. “러시아는 영원하다, 만세!”라고 빌보드에 몇 달간 예고했고, 결국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믿기 시작했다.

11월 11일, 시민들이 춤추며 거리에서 셀카를 찍으며, 파란색과 노란색 깃발을 들고 우크라이나 탱크와 함께 헤르손 시내를 행진했다. 제임스는 처음에는 도시가 정말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러시아인들이 이번에는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나 의심했다. 이전에도 러시아 군인들은 친우크라이나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민간인 또는 우크라이나 군인 복장을 했었다.

그는 기뻐할 시간이 없었다.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생수와 빵을 받으려고 이미 교회에 줄을 서 있었다.

러시아군은 후퇴하며 그 지역의 중요한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 약 3주 동안 전기, 수도, 난방, 전화 서비스가 없었다. 해방의 첫날이 끝날 무렵, 거리가 완전히 어두워진 시간에 7,000여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교회 밖에 줄을 서 있었다. 어찌 보면 러시아가 점령했던

시기보다 해방된 이후 헤르손의 도시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지난 12월 초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았다. 상점들, 은행들, 식당들, 학교는 여전히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직업이 없었다. 아이들이 없는 놀이터의 그녀가 흔들리고 있었다. 오후 7시 30분, 통곡시간 이후의 도시에는 불안한 정적이 흘렀고, 또 강 바로 건너편에서 산발적인 공격이 밤새 들려오며 도시를 뒤흔들었다.

헤르손 정복에 따르면 이 섬을 방문한 날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며 헤르손에게 51차례 포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그날 오전 10:20 A.M.에 첫 번째 포격이 들려왔다. 제임스와 네보드는 교회 밖에서 구호 물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누던 종이였고, 노인 한 명과 임신한 두 여성이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다. 러시아가 쏜 거대한 로켓의 폭발 소리가 꽤 가까이에서 들렸을 때, 그들은 말을 잊지 못했다. 나이가 많은 여성이 어린 여성을 두 팔로 감싸고, 그들은 네보드와 함께 서둘러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밴이 있는 방향으로 제임스가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감시!”

우리는 모두 그의 밴에 뛰어 들었다. 제임스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우리는 교회가 있는 섬 지역을 벗어나 다리를 건넜다.

러시아 탱크가 학교에 충돌하여 폭파했고, 러시아 군인들이 식당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동안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고, 러시아인들이 헤르손의 농부들로부터 농작물과 장비를 약탈하는 등 수많은 나쁜 일들을 제임스가 보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그가 손을 째 쥐었다. “이건 집단학살입니다.”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제임스는 짓밟힌 모래섬처럼 보이는 시내 건물을 가리켰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군이 보급한 히마스 로켓 포를 발사해 파괴하기 전에는 러시아 기지였다고 말했다. 목사는 이를 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너무 좋아요.” 그는 영어로 소리쳤다. “히마스, 만세!”

(다음호에 계속)



##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 월 디테일이 완성입니다 (왕하 14:1-4) 찬 380장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단을 제거하지 않았습니

다. 아마샤는 사해 계곡에서 에돔과 전쟁을 치렀고, 대승을 거두어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완성도는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아마샤는 그의 부친 요아스에

### 화 잘 나갈 때 조심합니다 (왕하 14:24-29) 찬 453장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을 통치 중 어려운 시기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부흥시켰습니

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국강병을 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는 변영

### 수 세속화된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왕하 16:1-8) 찬 545장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 아하스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하스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말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결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앗수르 왕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며, 결국 그는 앗수르 왕을 더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세속화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세속화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성도'가 됩시다.

### 목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왕하 19:1) 찬 348장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

니다. 그런 중에도 앗수르의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을 모욕하며 유다를 위협합니다. 히스기야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앗수르 진영에 머물고 있던 앗수르 군사 십

### 금 누가 주인인가? (왕하 20:1-11) 찬 304장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가정과 사역, 교회와 자녀, 기업과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할 때 히스기야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 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실수로 인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합시다.

### 토 주인을 바꾸지 맙시다 (왕하 21:11) 찬 425장

주인을 바꾸지 맙시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왕하 21:4), 성전 두 마당에 일월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왕하 21:5).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므낫세는 성전의 주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므

낫세가 성전의 주인을 바꾸려고 아무리 시도하여도 진짜 주인은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므낫세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을 바꾸지 맙시다.

## 교회음악 이야기(31)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 겻세마네 기도

한편의 그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영향을 주었던 빛의 화가로 불리는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를 통해 20세기 기독교에 가장 혁신적인 영향을 준 네덜란드 출신인 헨리 나우웬(Henri Jozef Machiel Nouwen, 1932-1996)을 변화시킨 일입니다.

파란만장한 생을 지내며 인생의 가장 깊은 협곡에 빠져있던 렘브란트는 1669년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 내면을 "탕자의 귀향"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1983년 나우웬이 프랑스 "토르졸리"라는 작은 마을에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라르쉬(L' Larch)에 머물던 중 문득 벽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을 그가 처음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장의 포스터 앞에서 나우웬은 눈을 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격한 감정이 솟아올라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그림의 원본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우웬은 렘브란트 그림 포스터를 처음 만난 지 2년 만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죽는 날까지 캐나다에 있는 "라르쉬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 지적 장애인들 돌보며 생을 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그림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모습은 아버지와 방탕하다 돌아온 탕자인 작은 아들과의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두 사람의 그 모습에 못마땅해하는 큰아들의 따가운 시선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 나우웬은 자신의 삶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학교수의 일을 정리하고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것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두 팔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구경꾼에서 주인공이 되는 일이었다고 회개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 회개하는 죄인의 자리에 사는 것이었으며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인간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그곳은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두려워서 차마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작은아들과 큰아들의 모습을 보며 나우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렘브란트가 바로 나의 회심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렸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 자신이 작은 아들이자 곧 큰아들이라는 사실 역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말을 빌려 필자는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며 그 안에서 나우웬이 말한 예수님의 두 모습 즉,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겻세마네의 기도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빼 마태, 마가, 누가 저자가 공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중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은 마태나 마가 저자의

기록에 비해 비교적 온순하게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마태와 마가 저자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라는 격한 감정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아들과 같은 불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작은 아들의 모습처럼 아버지께 주권을 맡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모습 속에서 바로 나우웬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큰 아들, 그리고 작은아들의 양면성을 연상하게 됩니다.

한편의 그림이 이처럼 많은 메시지를 주듯 하나의 짧은 음악이 드라마로 펼쳐지며 사건 현장을 사실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혜영 작곡가가 예수님의 겻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이 감람산에서의 모습을 음악으로 잘 스케치하여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당시 긴박했던 겻세마네 동산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는 듯 또렷하게 비추어 줍니다.

크게 세 가지 장면을 조명하게 됩니다. 먼저 겻세마네 전경의 모습입니다. 철쭉 같은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 단조로 서주를 시작합니다. 이어 먼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유니슨으로 비춥니다. 이어 카메라 앵글을 클러즈업해서 현장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듯, 같은 가사를 반복하고 네 파트로 성부를 나누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가까이에서 보게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엇박자를 사용하여 팍이 팍방울 되듯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어 유니슨으로 대조를 사용하여 평화로운 어린양을 묘사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두 마음을 그려 놓습니다. 하나는 "나의 아버지여 이 고통의 쓴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며 큰아들의 모습과 같이 불평이 섞인 항변 같은 모습을 그려냅니다. 다른 하나는 작은아들이 주는 고백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며 죽음으로 온 세상 구원할 어린양이 되겠다는 저항 속에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을 음악으로 그려냅니다.

겻세마네 기도의 장면은 하나님인 예수께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약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펼쳐신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통해 그 심자가 고통, 그리고 돌아가심을 감사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신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나우웬이 렘브란트가 그린 한 폭의 그림을 통해 모든 삶이 바뀐 것을 보여주듯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의 장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하나의 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썬바이 종족

▲ 인구 약 3-4,000명

▲ 종교 정령숭배

▲ 기타 문맹률 95%, 정글에 흩어져 거주, 주술사를 두려워 함

▲ 프로젝트 소개 성경 번역과 제자 훈련을 통해 썬바이 종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으며,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 프로젝트 진행 2006년부터 언어 조사와 연구로 시작되어 제자 훈련과 성경 번역을 진행해 왔고, 2020년 누가복음을 완성, 배포한 이후, 현재는 현지인 번역자 노악과 함께 창세기, 사도행전, 마가복음을 번역 중이다.

▲ 기도제목 1. 썬바이 사람들이 정령숭배의 전통과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에 마음을 열고 구원받게 되도록 2. 현지인 동역자 노악이 썬바이 영적 지도자로 더욱 세워지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성경 번역 사역을 감당해 가도록 3. 좋은 일꾼들과 성경 번역 점점 작업에 함께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선교 편지

튀르키예

안탈리아 (앗달리아, 버가)

3월 첫째 날, 안탈리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안탈리아는 신약의 앗달리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구브로에서 항해를 계속하여 도착한 항구입니다. 여기서 30분 거리 버가에서(사진)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사건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 두 사도는 갈라졌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사도행전 13:13, 14:25) 중앙아시아, 러시아권 선교사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위해 매시간 중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1999년 북쪽 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기독교 기관의 구조활동이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처럼, 이번 대재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 마침내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했습니다.

함께 하는 선교

재난 중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현지인 교회가 구호헌금을 모아 선교회 본부를 통해 전달했고, 남미 페루의 현지인 교회도 구호헌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현지 교회들이 이제는 세계 선교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2천 년 전 바울 선교팀이 개척한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근을 당한 유대의 형제들을 구제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선교 시대의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1-4, 고전 16:1-6, 고후 9:1-5)

SEED 선교회 역사 30년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한인교회가 선교지의 교회와 파트너가 되어 남은 과업을 함께 완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인 청년들과 선교지의 현지인 청년들이 함께 훈련 받아 미전도, 미접촉 종족 가운데 팀으로 사역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난달에도 중남미 선교사 모임은 중남미 청년 헌신자들을 위해 선교훈련학교를 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도는 선교입니다

18년째 K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사역보고를 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교에 헌신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학이시고 자신의 나이도 알지 못하실 만큼 가난한 집안에 출생하신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래전이지만 1991년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 받아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던 코스타리카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그 시간, 저희 가족은 지진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안고 환전소가 있는 맞은편 5층 건물로 들어가

려고 길을 건너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혼자 다녀올 테니 엄마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요!"라고 말한 후 돌아서는 순간,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땅이 흔들리며 맞은편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길을 건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아빠!" 아내와 아이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득히 들렸지만, 저는 무너지는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머리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가 마음을 바꾸었을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바꾼 게 아니라, 내가 바꾸었다. 너는 언어 배우느라 스트레스받아 기도 생활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네 마음을 바꾸어 주었던 다!"

성경적인 선교 전략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합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의 기도를 통해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사랑에 다시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요청]

1. 튀르키예/시리아 대재난 지역에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그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2. 한인 청년과 다민족 청년들이 함께 헌신하여 다음 세대 선교를 준비하게 하소서
3. 5월까지 이어지는 지역 모임들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지역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4. 모세와 사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선교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5. 아내의 Journey with Jesus 애니메이션 2편 제작이 잘 마무리 되게 하소서
6. 48개국 선교사 가정을 돌아보는 2년 심방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채워 주셔서 박신욱 유혜숙 선교사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 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sgcusa@yahoo.com / www.lsgc.com Tel: (323) 8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b>남가주사랑의교회</b></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학교: 오후 1:20 영어권 (중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b>디아스포라선교회</b></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30 2333 Figueroa Blvd., L.A., CA 90057</p>
<p><b>미주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 381-2202, www.mjpac.org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베델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ehel@kb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b>세계사망교회</b></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세계선교회</b></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327 / www.wmcsa.com / worldmissioncenter202@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b>살비치 사랑교회</b> (Seal Beach Se-R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참구예배: 오후 6:30</p> <p>Tel: (310) 749-4756 살비치 리저랜드 Clubhouse 3 Lobby/수일 Clubhouse 3 room 1(수)</p>	<p><b>열매교회</b></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b>엘피스사역원</b></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회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가정사역자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www.episteamily.org, www.gaoemc.com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요일예배: 오후 7:30 24시간 온오프</p> <p>Tel: (714) 446-6200, www.gao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Torrance, CA 90015</p>
<p><b>좋은마음교회</b></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ocalssmson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 M 청년예배: 오전 2:00(분당) 수-일 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히슬스망교회</b></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어정견이 일어나네"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인/터/뷰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 김정희 사모

남가주 순회 찬양집회에 이어 4월 14일부터 동부 집회



찬양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경민목사 부부

‘은혜’, ‘행복’, ‘감사’, ‘주의 은혜라’, ‘충만’, ‘동행’, ‘염려하지 말라’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찬양곡을 쓴 손경민 목사. “늘 찬양인도를 할 때면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는 손 목사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지 저는 제가 쓰임받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찬양할 때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 같았어요.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모여져서 찬양사역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들려준다.

손경민 목사의 부인인 김정희 사모는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과 찬양이 함께 한다면 사역이 더욱더 파워풀해질 것이며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학공

갓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혜천대학교교회(현 혜천기독교회)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담임목사이신 김성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라고 들려준다.

손경민 목사의 부인인 김정희 사모는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과 찬양이 함께 한다면 사역이 더욱더 파워풀해질 것이며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학공

손 목사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면서 이미 가정이 깨어져 버린 상태였고 빚쟁이에 쫓겨 다녀야 했으며 1년에 네 번 이사를 가기도 했던 그야말로 만신창의가 된 가정 형편 속에 살아야 했다. 가정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배달일, 6학년 때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으며 돈을 벌었으며 20세가 되었을 때엔 대학 진학 대신 공장에 취직을 하여

어요.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그때 회상한다.

늘 찬양하는 자리가 좋았던 손경민 형제와 김정희 자매, 두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며 임원도 같이 했다고 한다. 손경민 형제가 어머니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로 가게 되면서 잠시 헤어짐의 시간이 있었지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고 손경민 형제의 찬양사역 팀에 김정희 자매가 함께하게 되었으며 결국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손경민 김정희 두 찬양사역자는 찬양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별히 김정희 사모는 혜천대학교교회에서 주일예배는 물론 새벽기도회까지 반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때였어요. 김성국 목사님께서 담임목사로 계실 때에는,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에 매모지에 오늘 부를 찬송가를 적어주셨

어요. 그리고 그 밑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성경구절을 함께 적어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주신 메모지는 성경책에 붙여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성경책이 두꺼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늘 친어머니처럼 기도해 주시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저를 돌봐주셔서 매우 감사했었습니다”

손경민 목사는 “어떤 큰 사역이 아닌 주어진 사역 성실하게 감당하고 싶다”며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이 잘된다 싶으면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역자, 그리고 받은 감사와 은혜를 나눠주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경민 목사는 오는 7월초 뉴욕 퀸즈장로교회에서 찬양집회를 갖게 된다.

(박준호 기자)

“사역이 마무리 되는 그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감사와 은혜를 나눠주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엔 겸손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지난 2월 남가주와 라스베가스 방문하여 9번의 찬양 집회를 인도했으며 오는 4월 14일부터 미동부 7곳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 손경민 목사가 찬양사역자의 길로 가게 된 사연은 10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하는 어느 형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사역을 꿈꾸게 되었어요.

었다. 찬양곡을 쓰기 시작했을 때도 캄보디아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찬양인도를 하며 은혜를 나누었을 때에도 평신도 찬양사역자였다. 그가 결혼을 한 후에도 평신도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찬양사역자로 받은 소명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더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언제부터인지 목사의 길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는지 그길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부러움에 대하여 상의를 해야

부를 강하게 권면해주셨다”고 말했다.

김성국 목사의 권면으로 그는 한국침례신학대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으며 혜천대학교교회의 교육전도사로 2012년부터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전도사인 어머니의 기도였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준 그의 아내 김정희 사모의 내조가 큰 힘이 되었다. 두 부부는 어린시절부터 한동네에서 자라온 동갑내기 친구였다.

직장인이 되었지만, 그의 결연연제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김정희 자매가 있었다. 김정희 사모는 “그 당시 청년 손경민 형제는 밝은 친구였다”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집안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우 밝은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안거지만 당시 손경민 형제는 제가 짐작한 것 이상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

도 한결같은 해답인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의 마음에 위기와 두려움의 마음이 없어지고, 오직 예배 회복과 축복과 귀염병의 시대, 멈추지 말고 일하라, ‘교회는 회복과 승리의 요새’, ‘신앙의 일상성 회복’ 등을 비롯해 총 50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는 “‘예배’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말이다.



기 바란다”고 수록했다. 본서의 구입은 미주 각 기독교서점에서 구할 수 있으며 저자와의 연락은 davidnjeon@yahoo.com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새책소개



전남수 목사

예배를 회복하라

고센신학교와 센트럴침례신학대학교 겸임 교수로 ‘예배 회복, 교회론,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강의하고 있는 전남수 목사(알칸사제자교회 담임)가 ‘예배를 회복하라’를 출간했다.

그는 서문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교회로 모이는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지내왔다. 이제 그 시기가 지나 다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에도 영상예배의 습관을 유지하거나 대형교회로 이동하는 예가 많아졌다고 ‘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들 하지만, ‘교회에 위기’라는 말이 존재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주신 되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위기를 당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다만 그는 “교회의 위기가 아닌 연약한 성도인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며 “환경에 따라 일회 일비하며 성도의 성도다움을 말씀으로 지켜 내지 못할 때 그것이 결국 위기가 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성도의 성도다움을 말씀으로 지켜 내지 못할 때 그것이 결국 위기가 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서는 제 1부 ‘포스트 코로나, 예배를 회복하라’, 제 2부 ‘

최고센 목사(뉴욕서광교회 담임)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어떤 신앙의 위기 앞에서

이 책을 통해 우리의 기본기가 단단해져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영적강자가 되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